금수강산

10

주체106(2017)

루계 제338호 월간

 ISSN 1727—9062

2. 래일을 믿기에 지켜온 한길
굴할줄 모르고 달려온 한길
이 길에 바쳐진 더운 피와 땀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리
(후렴)

3. 우리는 영원히 사회주의와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선택한 이 한길에서
강국의 영광을 떨쳐가리라
(후렴)

또다시 성공!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는 경이적인 소식에 접하여 터치는 사람들의 함성 하늘땅을 진감한다.

조선중앙통신

차 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주체106(2017)년 7월

내 조국의 맑은 하늘

조선로동당이 창건[주체34(1945)년 10월 10일]되여 70여년,

당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오늘 온 나라 인민은 조국의 맑은 하늘가에 휘날리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당기를 뜨거운 격정속에서 우러르고있다. 그리고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당이 있어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라고.

조국인민들의 이런 확신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최근년간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단행한 지하핵시험과 수소탄시험의 대성공, 위력한 주체무기들의 련이은 성공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의 단번성공 등 눈부신 특대사변들이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더 확고한것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국땅 어디에 가보아도 남녀로소모두가 우리의 핵, 우리의 로케트소리를 입말처럼 외우며 이 승리를 안아온 조선로동당에 대한, 당의 창건자이시고 령도자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이야기로 끓어번지고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쌓으신 업적, 남기신 재부들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조국과 민족의 안전을 위해, 백년숙적 미제와의 총결산을 위해 강력한 자위적국방공업을 마련해주신것은 절세의 위인들께서 이 땅의 후손들에게 남기신 참으로 소중한 유산중의 유산이다.

해방후 할 일도 많았지만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국방공업창설의 웅지를 안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천벌(당시)에 첫 병기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이곳에서 우리 인민의 손으로 첫 기관단총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기관단총시범사격도 하여주시였다.

1960년대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는 때에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자위적국방공업을 더욱 강화발전시키신 수령님이시였다. 그 병진로선이 있어 조국땅에 밀려들던 전쟁의 불구름이 가셔질수 있었고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감행되였지만 결코 조국의 맑은 하늘을 흐려놓을수 없었다.

조국의 국방력강화에 대해 말할 때 여기에 바쳐진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모르고서는 누구도 강국으로 솟구친 조국의 오늘에 대해, 평화가 어떻게 지켜졌는가에 대해 다 안다고 말할수 없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땅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가 련이어 휩쓸었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붕괴》를 떠들며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해오는가 하면 침략전쟁책동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었다. 하지만 조국을 수호하고 인민들이 자주적인민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갈수 있게 하는 길은 제국주의와 맞서싸우는 길밖에 없다는 단호한 립장과 의지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부르시며 인민군부대들과 군수공장들을 찾고찾으시였다. 수령님께서 맡기고가신 조국과 인민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국방력강화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하여 조국땅에서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전률시키며 100% 조선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한 지하핵시험에서 완전성공하는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을 련이어 이룩하게 되였으며 공화국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인 자위적국방공업을 발전시켜 하루빨리 반미대결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자위적인 핵보유를 영구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병진로선을 내놓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핵억제력을 토대로 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하핵시험이 성과적으로 단행되고 지난해에는 첫 수소탄시험성공의 장엄한 뢰성이 천지를 진감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얼혼이 나간 미국은 야

지상대지상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 성공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 성공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 성공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

만적인 경제제재와 함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광증으로 헤덤비며 발광을 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기와 년대를 이어온 백년숙적 미제와의 대결을 끝장내고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부를 강위력한 핵공격수단과 전략무기개발사업에 모든 힘을 다해가시였다. 로케트연구부문에 표준화된 핵탄두뿐아니라 대형중량핵탄두도 장착할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로케트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과학적예지와 걸출한 령도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새로운 연구종자도 안겨주시고 그에 대한 연구방향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새로 개발한 로케트발동기시험은 물론 탄도로케트시험발사 전과정을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현지에서 지도해주신 그이이시다.

대출력발동기개발때만 보아도 그러하였다.

이 발동기는 기존개념으로는 거의 10년이 걸릴뿐아니라 보통의 담력과 배짱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였다.

때로는 실패에 위축되고 주눅이 들세라 더 큰 사랑과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위험천만한 시험현장에서 실패의 원인도 함께 찾으시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손길아래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성공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렸으며 끝내는 완전히 우리 식으로 대출력발동기를 개발창조해내는 기적을 이룩하였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보다 한달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대사변은 조국에서 《3.18혁명》으로 불리우고있다.

오늘도 조국인민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한품에 얼싸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뜨겁게 축하해주시였을뿐만아니라 이 대출력발동기를 리용하여 개발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성공을 놓고 그처럼 격정을 금치 못해하시던 그이의 모습을 잊지 못해한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하던 때였다.

그날은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광명성절을 앞둔 올해 2월 12일이였다. 당시 일군들은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떠나주실것을 안타깝게 아뢰였건만 그이께서는 탄도탄총조립전투현장에서 무려 이틀간에 걸쳐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였다. 그리고 먼동이 터오는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 한번 해보자고 하시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발사진지로 떠밀어주시였고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을 때에는 그 기쁨이 너무도 크시여 그들모두를 얼싸안아주시였다.

그 눈물겨운 모습을 심장에 새기며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이어 신형반항공요격유도무기체계의 시험사격,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시험발사, 신형지상대해상순항로케트시험발사 등에서 모두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공화국이 터치는 련속적이고 다발적인 이 승리의 포성에 넋을 잃은 미국은 더욱 악랄하게 핵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며 이를 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파렴치한 미국의 승냥이 이발을 완전히 꺾어버릴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지니시고 그 준비사업을 조직지휘하시였다.

한밤중에도 이른새벽에도 흙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스스럼없이 찾고찾으시여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의 초행길을 한치한치 열어가신 그이이시였다.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전사들은 막아나섰건만 그이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바로 그 길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 애국념원을 꽃피우는 길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오로지 당만을 하늘처럼 믿고 진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사랑하는 인민을 영원히 전쟁의 검은구름이 비끼지 않는 밝고 푸른 하늘아래에 내세우시려는 뜨겁고 열렬한 인민사랑의 길이였기에 그이의 걸음걸음을 멈춰세울수 없었다.

이런 불같은, 초인간적인 헌신이 있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이라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올수 있었다.

불패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우리 조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이제는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게 되고 이 불패의 군사적위력으로 하여 조국은 영원한 평화를 손에 쥐게 되였다면 미국은 항시적인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만드는 통쾌한 쾌승을 안아왔다.

오늘 조국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을 따라 자위적국방공업발전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걸어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그 길에 내 조국의 밝은 하늘과 더불어 최후의 승리도, 천하제일강국의 래일도 밝아올것이기에.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조선중앙통신

일 화

《선물보따리》

주체106(2017)년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의 성공적시험발사를 보시면서 이번 5월 한달기간에만도 우리는 주체조선의 국방공업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최근 우리가 이룩하는 값비싼 승리의 소식들이 전파를 탈 때마다 적들의 고민이 커질것이며 적들이 점점 맥이 빠지게 될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똑바로 알게 하며 무모한 군사적망동질로 차례질것은 결국 죽음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새기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오늘의 이 성과를 토대로 위력이 더 큰 전략무기들을 계속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가 짜놓은 시간표와 로정도대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우리의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들에게 더 큰 《선물보따리》를 보내주기 위하여 지금의 이 기세로 더 큰 비약을 이룩해나갈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106(2017)년 7월 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식으로 새롭게 설계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용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시험발사결과를 분석하시고 완전대성공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환희로 들끓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전략적선택을 눈여겨보았을 미국이 매우 불쾌해하였을것이라고, 《독립절》에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할것 같은데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작은 《선물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결실

정력적인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의 칭송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조일연 총련 도꾜도본부 위원장은 조국이 불과 20여일동안에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련이어 성공시킨것은 영웅조선의 주체적로케트공업의 비약적인 발전속도와 막강한 잠재력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력사적쾌거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담대한 배짱,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백두산대국의 자주적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를 대성공으로 이끄시여 무진막강한 주체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할빈지구협회 할빈시지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에 미국이 혼비백산하여 갈팡질팡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남조선괴뢰들과의 북침전쟁소동으로 조선반도에 극도의 정세악화와 핵전쟁위험을 불러오는 행위를 그만두며 남조선에 끌어들인 모든 핵전쟁장비들을 가지고 시급히 제 소굴로 돌아가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과 정세전문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특출한 령도실력에 의해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두고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의 련속이며 계승》이라고 격찬하였다.

한 재야인사는 강한 국력은 탁월한 령군술과 지략을 지닌 절세위인을 모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북군은 **김정은**위원장님의 지휘하에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고있다고 토로하였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되고있는 공화국의 패승과 오늘의 정세국면에 대해 《백두의 기상이 어린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탁월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고 위대한 병진로선의 승리》, 《인류정치사를 바꾸어놓게 될 세계사적사변》, 《북이 미국의 덜미를 잡아끌고가는 형세》, 《렬강들을 놀래우는 큰 사변들을 련이어 엮어가시는 정치적지도력과 결단성은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격찬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마음이 든든합니다

조국땅에서는 경이적인 특대사변들이 련일, 련속 일어나고있습니다. 세인을 놀래우며 지하핵시험과 수소탄시험의 대성공, 우리 식의 위력한 주체무기들의 련이은 성공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의 성공 등 그 이름을 다 꼽기 어려울 정도로 자랑스럽고 눈부신 성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금할수 없었고 강국의 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가슴이 막 부풀어올랐으며 이제는 우리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였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민족들마다에는 나름대로 갈망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민족의 념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가지는것입니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는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자기를 지킬 힘이 약했던탓에 나라를 일제에게 통채로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음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비참한 식민지약소국, 이것이 한세기전 우리 민족의 모습이였습니다. 그리고 미제에 의해 한 나라, 한강토가 둘로 갈라졌을뿐만아니라 수백만 조선민족이 목숨을 잃고 북반부 전지역이 페허가 되는 참혹한 전쟁을 겪어야만 했으며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이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구쳐오르게 되였으며 이로써 미국이 공화국의 이 불패의 군사적위력앞에서 항시적인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습니다. 지금껏 우리를 괴롭히고 또 괴롭히지 못해 별의별 추악한짓만 일삼던 미국의 코를 우리가 꿰고 다스리며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만복이 꽃펴나는 인민의 락원건설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가슴후련한 이 현실을 생각할수록 저의 가슴속에서는 해방후 첫 병기공장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군수공업의 초행길을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생각, 군력강화의 험로역경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생각, 그분들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해 사생결단의 천만리길을 헤쳐가신 우리 원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의 념원인 강위력한 국방공업의 강화발전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빛나는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천만군민은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그 무슨 《위협》으로 걸고들며 우리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한데 대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반인륜적범죄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르고있는 백년숙적 미제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백배로 결산할 철의 의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평화번영의 영원한 기치인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그 누구의 눈치를 볼것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곧바로 끝까지 갈 신념과 배짱으로 자력자강의 위력을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민총결사전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저도 승리자의 자존심과 든든한 배심을 안고 국방공업발전에 쌓으신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 힘있게, 더 자랑스럽게 전해가겠습니다.

평천혁명사적관 관장 량애경

《조선은 평화를 손에 넣었다》

공화국이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과시하며 주체무기들의 대성공의 폭음을 련속 터뜨리는 가운데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에서도 또다시 성공하였다.

이것은 원자탄과 수소탄을 보유한 공화국이 강위력한 운반수단들을 다 갖춤으로써 미태평양군사령부가 둥지를 틀고있는 하와이와 미국 알라스카는 물론 미국의 심장부까지도 단추하나 누르면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로써 장장 수십년간 공화국에 핵위협을 가하던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공화국의 핵억제력에 의한 위협과 공포를 불안고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을 세계에 시사해주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이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질 때마다 미국에서는 악몽에 찬 비명과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미국회에 공화국을 《미국의 〈악몽목록〉가운데서 가장 꼭대기에 근접한 나라》로 규정한 보고서가 제출되고 미국의 정객들속에서는 조선이 저들의 동맹국들뿐아니라 미국의 50개주모두를 타격목표로 하고있는것이 매우, 매우 빠른 속도로 명백해지고있다고 비명을 질렀는가 하면 미국의 언론들은 《조선, 트럼프에게 지옥의 핵위기 안겨줌》, 《조선의 미싸일 미국을 핵곤경에 몰

아녕었다. 트럼프 운명적인 결정을 해야 할 처지에 처함》등의 제목을 달고 조미대결에서 미국에 대한 조선의 위협이 커지는데 대해 불안과 공포를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런 속에 미국방장관 마티스는 기자들에게 《만약 조선과의 문제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믿기 힘든 엄청난 비극이 초래될것이다.》고 토설하면서 추종세력들에게 외교적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협력》을 구걸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전직, 현직고위정객들과 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북핵프로그람페기와 관련하여 미국이 선택할수 있는 대응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개탄하는 맥빠진 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을 세계는 미국의 장송곡으로 듣게 되였으며 그럴수록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확신을 보다 굳게 가지게 하고있다.

로씨야의 여러 단체는 성명들을 발표하여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조선인민을 잘못 보았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을 끊임없이 들이밀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지만 공화국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연구개발하였을뿐아니라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와 핵무기를 가지고있는 조선의 평화적발전을 미국은 더는 가로막을수 없게 되였다고 조소하였으며 이란통신은 보도에서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조선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이 정의의 핵을 틀어쥐고있기에 미국은 절대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될것이다, 정의의 핵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화성-14》형시험발사의 뢰성이 인류에게 새겨주었다고 전하였다.

지어 미국의 잡지 《포브즈》까지도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로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세계의 각광을 받으시고 백악관은 돌발적인 공포속에 빠졌다, 조선은 위력한 강국이 되고 미국은 맥빠진 작은 나라가 되였다라고 조미대결의 승패를 명백하게 평한 기사를 실었다.

뿐만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네트를 통하여 《조선은 평화를 손에 넣었다. 그들이 2 000번 시험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자기를 지키기 위한것이다.》, 《조선은 핵무기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걱정할것이 없다. 이것을 오늘날 지구상의 정의라고 부른다.》등의 글들을 올리고있는가 하면 오스트랄리아신문 《오스트랄리안》은 공화국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로 묘사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조선관광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제반 사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감행되여오던 미국의 핵전쟁위협은 영원히 끝장났고 영원한 평화의 보검을 억세게 틀어쥔 공화국은 앞으로 최후승리의 통장훈을 반드시 통쾌하게 부를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굳게 가지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그들이 력사에 새겨놓은 교훈

이라크는 1991년 페르샤만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국방력에 있어서 중동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던 나라였다. 그러나 이라크가 가지고있던 거의 모든 무장장비들은 외국제였다.

원유생산대국인 이라크는 외화만 있으면 군사장비를 사오는것쯤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체의 국방공업발전에 힘을 넣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페르샤만전쟁후 유엔의 대이라크제재조치로 하여 다른 나라 무기들을 사올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되였다.

게다가 이라크지도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사찰단을 자기 나라에 들여놓고 국가주권의 상징인 대통령궁전까지도 뒤져보게 하는 어리석은짓을 서슴지 않았다. 2003년 3월에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전쟁을 피할수 있지 않을가 하는 기대를 안고 미국의 요구대로 보유하고있던 무장장비들을 파괴하는 머저리짓도 하였다.

하지만 전쟁은 끝내 일어났으며 이라크는 미국에 의해 두들겨맞고 나라는 페허가 되였으며 인민들은 한지에 나앉는 신세가 되였다.

리비아사태는 또 어떠한가.

2003년 12월 19일 저녁 리비아의 TV방송으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리비아외무상이 자국의 비상용무기계획을 공개하고 철페할것이라고 선포한것이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어 국가지도자라고 하는 가다피가 이 결정을 비준한다고 언명하면서 그것을 《현명한 결정》, 《용감한 행동》으로 묘사한것이였다.

리비아는 미국이 9.11사건을 계기로 《반테로전》을 제창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자 다음번 공격대상으로 될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였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공격을 개시한 2003년 3월부터 미국과 전쟁억제력페기와 관련한 회담을 벌렸다. 회담에서 미국은 리비아가 가지고있는 전쟁억제력을 공개하고 페기하며 해외로 반출할데 대한 강도적인 요구를 들이댔다.

이에 겁을 먹은 리비아는 2004년 1월 수백페지에 달하는 핵탄두설계도면을 미국에 바치였다. 미국은 이 나라에서 핵설비와 장거리미싸일유도체계도 실어내갔다.

미국은 리비아가 핵포기를 선포하면 당장 큰 대가를 지불할것처럼 놀아댔으나 실지는 그들이 핵을 포기하자마자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더욱 갱신하였으며 반란세력을 부추겨 폭동을 일으키게 한 다음 군사적타격을 가하였다. 리비아는 졸지에 와해상태가 되고말았다. 그것은 핵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대접이였다.

결코 이 나라들뿐이 아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강권과 회유에 굴복한 결과 내란과 테로, 전쟁이 지속되고있다.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할 때 자기를 지켜낼수 있다는것, 이것이 바로 그 나라들이 력사에 새겨놓은 교훈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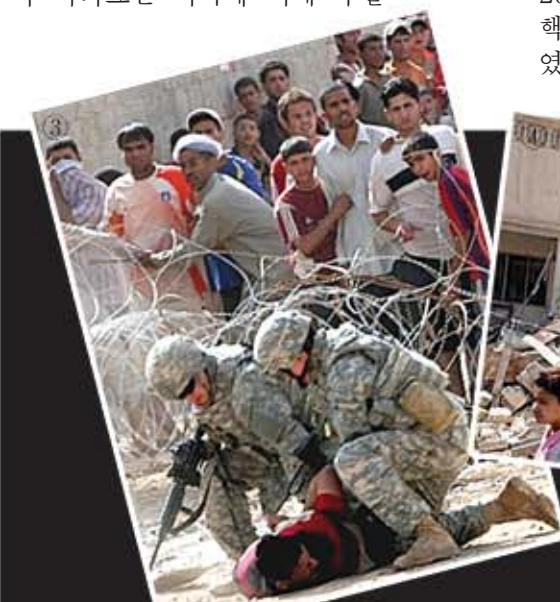
① 아프가니스탄주민의 집에 뛰여들어 수색소동을 벌리는 미군
② 미군철수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아프가니스탄인민들
③ 이라크강점 미군의 폭압만행
④ 미군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파괴된 이라크주민들의 살림집
⑤ 오물장을 뒤지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라크의 극빈자들

려명거리의 일부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평화와 안전의 담보

평화는 인류의 지향이고 념원이다. 그러나 평화는 구걸이나 호소로 지켜지는것이 아니다.

미국의 날강도적인 무장해제요구에 순종하여 자위의 길을 포기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라크가 대통령궁전까지 개방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구걸했고 리비아가 그처럼 막대한 품을 들여 마련했던 핵계획문건들과 설비들을 고스란히 바치며 관계개선의 손을 내밀었지만 미국이 이 나라들에 가져다 준것은 평화가 아니라 참혹한 파괴와 예속, 피눈물뿐이였다.

약자앞에서는 더욱 횡포해지고 오만해지는것이 미국이다.

오늘 미국은 저들의 군사적힘을 만능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핵이 없는 나라, 힘이 약한 나라들만 골라가며 짓밟고있다.

그러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하고있다. 그 리유는 공화국에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지난 1950년대부터 공화국에 핵위협공갈을 가해온 미국이다. 조선반도에서 해마다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핵전쟁도발을 시도하여왔다.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위험은 더욱 짙어졌다. 때없이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들이밀고 선제타격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다. 이런 엄혹한 사태에서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부득불 핵을 보유하고 질량적으로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은 더욱 모험적으로 나왔다. 올해에도 미국대통령 트럼프는《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내놓고 군사적방법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였다. 그들은 저들의 목표가 《수뇌부제거》와 《제도전복》에 있다는것을 거리낌없이 공개하면서 지난 3월과 4월에 진행한 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에 핵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병력을 포함한 최대규모의 침략무력을 투입하였다. 무려 두달동안 치른 핵전쟁연습은 규모와 강도에 있어서 전례없는것이였다. 지어 미국은 4월전쟁설까지 내돌리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상태에로 몰아갔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핵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항시적으로 전개시켜놓고 공화국에 핵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있다.

이에 공화국은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북극성-2》형시험발사,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 등 다발적이고 련발적인 성공으로 미국에 강력히 맞서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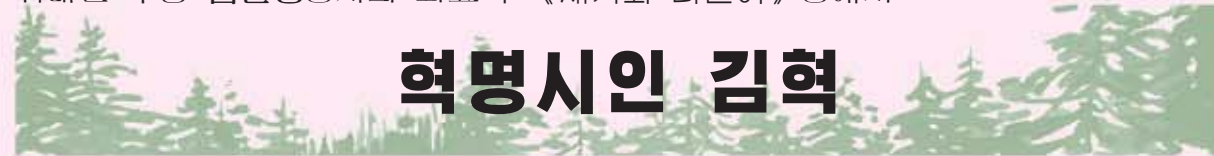
이를 두고 세계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조선이 군사적압력에 굴복할것이라는 미국의 타산은 망상이다.》, 《군사적압박으로 조선을 옥죄일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천진한짓이다.》 등으로 평하면서 공화국의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어 《4월전쟁설》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수호될수 있었다고 전하였다.

만약 지구상에서 가장 횡포한 미국과 맞선 공화국이 자위의 핵억제력을 손에 틀어쥐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이 열백번도 더 일어났을것이고 지역적범위를 벗어나 전세계에로 확대되였을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공화국은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내는데 크게 공헌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수호의 확고한 담보이며 절대적힘이다.

하기에 스웨리예의 공산당기관지 《프로레테렌》은 《평화와 핵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서방언론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위협에 대해 매일같이 떠들고있지만 사실 그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이라크나 리비아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것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조선의 전쟁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조선반도의 평화는 보장될수 없었을것이다. 아마도 세계는 조선의 핵억제력에 의해 구원되는것 같다.》

최광춘

혁명시인 김혁

(전호에서 계속)

김혁의 이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그는 늘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동지들을 찾은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인생체험이 있었기때문에 김혁은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까지 지어가지고 혁명조직들에 보급하였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다. 신안툰에 내려가니 그곳 청년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김혁은 우리 몰래 차광수, 최창걸동무들과 의논해가지고 길림일대에 그 노래를 보급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를 별에 비기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는데 대해 아주 엄하게 꾸짖었다.

《조선의 별》이 보급되던 그무렵부터 우리 동무들은 내 이름도 한별이라고 고쳐불렀다. 저희들끼리 이름을 지어가지고는 내 의향에는 관계없이 《한별이》, 《한별이》 하고 불렀다. 한문자로 표기하면 一星(일성), 즉 한별이라는 뜻이였다.

우리 동무들과 함께 내 이름을 **김일성**(金日成)으로 고치자고 발기한것은 변대우를 비롯한 오가자의 유지들과 최일천과 같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성주》,《한별》,《일성》이라는 세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김성주는 아버지가 지어준 나의 본명이였다.

유년시절에는 중손이라고 불렀다. 증조할머니가 생존해계실 때 나를 중손이라고 불렀기때문에 우리 집안사람들이 그 본을 따서 《중손이》, 《중손이》 하고 불렀다.

나는 아버지가 지어준 본명을 무척 귀중하게 여기고있었기때문에 내 이름을 다르게 지어부르는데 대하여 달가와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를 별이나 태양에 비기면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추대하는데 대하여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엄하게 단속하고 설복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동무들은 내가 달가와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하였다.

김일성이라는 나의 이름이 공식 출판물에 처음으로 소개된것은 1931년 봄 내가 고유수에서 군벌들에게 체포되여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를 알고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전날의 습관대로 나를 그냥 성주라고 불렀다.

내가 동무들속에서 **김일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운것은 후날 동만에 나와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부터였다.

동무들은 이처럼 새 이름을 지어주고 노래까지 지어부르면서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성의는 참으로 극진하였다.

내가 나이도 어리고 투쟁경력도 짧았지만 그들이 나를 내세우지 못해 그처럼 애쓴것은 통일단결의 중심도 없이 각당, 각파가 저마끔씩 영웅호걸행세를 하면서 파쟁으로 혁명운동을 말아먹던 전세대의 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나라를 찾자면 2천만 민중이 합심해야 하며 2천만 민중을 한마음한뜻으로 뭉치게 하자면 령도의 중심, 통일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기때문이였다.

내가 김혁, 차광수, 최창걸과 같은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들이 나에 대한 노래를 짓고 나를 지도자로 내세워서가 아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 민족이 그처럼 절절하게 바라면서도 실현할수 없었던 통일단결, 우리 인민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인 참다운 통일단결의 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령도자와 대중의 일심동체를 이룩한 통일단결의 새 력사를 피로써 개척한 선구자들이기때문이다.

우리와 함께 혁명을 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

들은 자리다툼때문에 대오에 불화를 조성한적도 없고 의견상이로 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내세운 통일단결을 파괴해본적도 없었다. 통일단결은 우리 대오에서 진짜혁명가와 가짜혁명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여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감옥과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이 통일단결을 목숨으로 사수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것을 재보로 넘겨주었다.

그들의 첫째가는 력사적공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를 핵으로 통일단결한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넋은 오늘 우리 당이 일심단결이라고 부르는 통일단결을 낳은 위대한 전통으로 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혁명투쟁을 전개한 바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은 파쟁과 혼란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김혁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때문에 밤도 패고 배도 곯고 발도 얼구면서 만주의 설한풍속을 헤쳐가던 김혁의 모습은 지금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있다.

그가 지금 살아서 우리의 곁에 있다면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이다. 혁명앞에 모진 시련의 고비가 닥쳐올 때마다 나는 지난날 온몸을 애국으로 불태우며 투쟁속에서 젊음을 빛내던 살틀한 동지 김혁을 생각하며 그가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간데 대하여 애석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김혁의 모습을 영원히 전해주려고 대성산혁명렬사릉 맨 앞줄에 그의 반신상을 세웠다.

김혁이 사진 한장도 남기지 않았고 또 그때 같이 싸우던 동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다보니 그의 얼굴모습을 알 길이 없었다. 그래서 반신상을 세울 때 우리 조각가들이 수고를 하였는데 김혁의 얼굴모습은 내가 알려주어 완성하게 하였다.

(끝)

화성의숙의 진정한 스승

력사에는 어린시절부터 남다른 지혜와 총명, 비상한 자질로 하여 이름을 날린 명인들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세기와 세기를 이어 만사람의 존경과 흠모를 받아온 위인은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독립군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화성의숙에 입학하신것은 주체15(1926)년 6월이였다.

그이께서는 화성의숙에서 공부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여 의숙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동무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시대사조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은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독립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수 있는 선진사상을 따라야 한다고, 앞으로 혁명의 새로운 앞길에 대해 함께 모색해보자고 하시였다.

그후에는 함께 공부하는 동무들에게 《공산당선언》, 《레닌의 일생기》, 《사회주의대의》를 비롯한 책들을 나누어주시고 연구하도록 하시였으며 돌려가면서 다 읽은 다음에는 조선혁명과 결부하여 토론하도록 이끄시였다.

그때 토론에 붙였던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겠는가, 민중을 조직동원하기 위한 방책은 무엇인가, 누구와 손을 잡으며 어떤 대상을 적으로 보겠는가 등 그야말로 조선혁명을 위한 실천적문제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론문제를 제시하시고 누구나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내놓게 하신 다음 하나하나 결속하시였는데 그이의 설명을 듣고나면 모든것이 명백하고 앞이 환히 트이여 모두가 경탄을 터뜨리군 하였다.

학생들은 그 과정에 사회주의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에 대한 명백한 리해를 가지고 투쟁방도를 알게 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나날에 그이이시야말로 우리 혁명을 참다운 길로 이끄실 탁월한 스승이시며 령도자이시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고 수령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받들어갈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였다.

사실 그들은 나이가 제일 어리신 수령님을 처음 만나뵈올 때부터 그이의 출중한 위인적풍모에 반하여 저도 모르게 끌리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숙에 오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에 있은 일이였다. 한 교원이 그이께 이미 배운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명백히 밝혀 사리정연하게 현실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해설하시였는데 교원과 학생들은 그이의 풍부한 지식과 설득력있는 설명에 누구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의를 받을 때마다 얼마 적지 않으시는것을 보고 강의에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였는데 어느 과목, 어느 문제든지 막힘이 없었기때문이였다.

학생들은 후날에야 수령님께서 수업시간에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명백하면서도 사리정연하게 해설하시여 학생들과 일반교원들은 물론 숙장을 비롯한 독립군의 원로들을 놀라게 하군 하시는 그 비결이 타고나신 자질만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원대한 포부를 지니신 그이의 남다른 탐구심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그이에게서 가르치심을 받고 배우는것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여기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의 앞날에 대해 스스럼없이 그이께 의탁하게 되였던것이다.

하기에 그들은 주체15(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타도제국주의동맹(략칭《ㅌ. ㄷ》)을 결성하면서 그이를 책임자로, 조선혁명의 령수로 높이 모시였다.

《ㅌ. ㄷ》의 그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새형의 혁명적당과 인민정권, 불패의 혁명무력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태여났으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꽃펴났다.

본사기자 김솔미

인민을 위해 바치신 한평생

주체86(1997)년 10월 8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들은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그이의 불멸의 자욱을 되새겨보고있다.

그 나날에 꽃펴난 인민사랑의 일화들은 수없이 많다.

《설란화는 없소?》

주체100(2011)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육종한 다수확남새품종들을 보아주실 때였다.

진렬대에는 한개의 무게가 보통 3~4㎏이나 되는 봄무우며 수확고가 매우 높은 오이와 도마도, 원형가지와 반원형가지 등 여러가지 남새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흐뭇한 심정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물으시였다.

《설란화는 없소?》

뜻밖의 물으심이였다.

(남새품종일가? 화초품종일가? …)

일군들이 의아해하였다.

머밋거리던 연구소의 한 일군이 한풀 꺾인 목소리로 설란화는 아직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며 절절히 이르시였다.

《설란화는 좋은 식물인것만큼 꼭 심어야 합니다.》

후에 알게 된데 의하면 설란화는 각종 비타민을 비롯하여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세계적

으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는 양배추의 새 품종이였다.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마음쓰시는 그이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머리가 깊이 숙여졌다.

제일 중시하신 건설대상

주체100(2011)년 7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타신 축전지차가 과일즙생산현장을 거쳐 공기조화기실앞을 지날 때였다.

한 일군이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의 가공설비들은 아시아나라들가운데서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갖추어놓은 최첨단설비들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면서 식료가공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회사사장이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 납입한 설비들을 조립할 때 와서 공장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돌아보고 이렇게 현대적인 설비들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과일가공공장은 유럽나라들에도 없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한 사실과 앞으로 자기네 회사에서 생산한 설비를 사가려고 하는 나라들은 먼저 조선에 가서 이 공장을 보게 한 다음에 설비를 팔아주겠다고 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며 그쯘하게 갖추어진 하나하나의 설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던 그이께서는 사실 이 공장은 자신께서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큰 마음을 먹고 지은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을 잘 먹이고 잘살게 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낄것이 없다는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1월 1일에도 올해에 내가 제일 중시하는 건설대상이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생각

주체100(2011)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의 울란-우데시의 상업중심인 대형슈퍼마케트 《메가찌딴》을 찾으셨을 때였다.

이날 그이께서 불시에 방문일정을 변경하신 바람에 슈퍼마케트에는 상품을 사러온 도시주민들이 그대로 붐비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들과 허물없이 어울리시여 매대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슈퍼마케트지배인을 비롯한 이곳 일군들을 통하여 상품보장과 판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상품을 자체로 생산하는가 아니면 수입하는가, 현재 팔고있는 먹는기름의 종류가 모두 몇가지나 되는가, 산 물고기를 파는가, 주민들의 하루 빵수요량은 얼마인가, 매일 찾아오는 사람은 몇명이나 되며 매상고는 얼마나 되는가…

그이께서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동행한 우리 일군들에게 인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 상점에 있는 먹는기름들가운데서 누런 색갈이 나는것도 있는데 정제를 잘하지 않은것 같다. 우리는 기름을 무조건 철저히 정제하여 맑은 기름을 인민들에게 팔아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식료공업부문 일군들에게 기름을 정제하면 거둠률이 낮아진다고 하면서 정제하지 않으려는 나쁜 경향이 있다. 초림계추출법으로 기름을 생산하면 거둠률을 98%이상으로 높이면서도 질좋은 기름을 생산할수 있다. …

이 상점에서는 빵을 비롯한 여러가지 식료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판다고 한다. 하나의 상점에서 자체로 생산하여 파는 빵만 하여도 이렇게 다양한데 그전에 평양밀가루가공공장에서는 둥근 빵을 비롯하여 빵을 몇가지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해당 일군들이 로씨야의 원동지방에 있는 빵공장에 가서 빵생산기술을 배워오도록 하였다. …

정녕 그 어데 가시여서도 그 누구를 만나시여도 그이의 첫 물으심은 언제나 인민이고 마음의 첫자리에는 항상 인민이 있었다.

본사기자 엄향심

조국과 민족의 번영과 정신력

오늘 조국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처럼 상반년기간에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단위들이 늘어나는가 하면 국방부문에서는 군력강화의 승전포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퍼지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전쟁연습소동과 제재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최악의 조건속에서 조국인민들은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비결은 다름아닌 조국인민들이 지닌 사상정신력에 있다.

조국인민이 지니고있는 사상정신력은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이며 열백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에 뿌리를 두고있는 백절불굴의 정신력이며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자력자강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여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려는 무한대한 정신력이다.

이 정신력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근본바탕을 두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인민에게 혁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자면 어떤 투쟁정신을 지니고 어떤 신념과 의지로 싸워야 하는가를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인민대중의 사상정신력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력한 추동력이다.

인민대중이 견인불발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할수록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되며 사회주의가 활력에 넘쳐 발전하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여부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객관적인 물질경제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주체인 인민대중의 사상정신상태에 있다.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아무리 든든한 물질경제적밑천을 가지고있어도 침체와 답보를 면할수 없지만 인민대중이 불굴의 정신력을 발양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 현대적인 군사기술수단과 방대한 경제적잠재력도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과 결합되여야 그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가 실증해주는 철리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동유럽나라들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일 대신 제국주의사상문화를 끌어들여 사람들속에서 사상적와해와 변질을 가져옴으로써 경제적잠재력과 군사력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결국에는 부강번영의 길로가 아니라 제3부류나라로 멸시받는 비극적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조국인민들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사상정신력으로 뚫고 헤쳐왔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피로써 끝까지 지키려는 불굴의 정신력으로 미제국주의를 타승하였으며 전후 재더미밖에 남지 않은 페허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전후복구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가중되는 반공화국고립압살과 제재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력자강의 위대한 정신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이야말로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최강의 무기이다.

조국인민은 이 위대한 정신력을 지니고 그 위력으로 싸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고 백전백승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첨단기술을 독점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파렬구를 내고 존엄높은 핵강국, 로케트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가 결코 미국의 영원한 독점물로 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오늘 조국인민은 강한 사상정신력이야말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는 가장 위력한 무기이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번영의 확고한 담보라는 신념을 가지고 조국번영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나가고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김윤정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에 박차를

금성뜨락또르공장의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산물인 현대화된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공장의 일군인 김순철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공장의 로동계급은 뜨락또르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갖출수 있으며 그것이 곧 알곡증산으로 이어진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새형의 뜨락또르생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새형의 80hp뜨락또르의 계렬생산공정의 완비와 함께 올해 뜨락또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있다.

뜨락또르설계연구소의 일군들과 설계원들, 공장의 기술집단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새형의 뜨락또르표준설계와 만수십여종에 달하는 지구장비설계를 짧은 시일에 완성하였다. 이와 함께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공구역을 확정하고 전문화구역의 설비배치도를 완성하였으며 가공공정표를 작성하고 기계설비들의 이설준비를 동시에 내밀고있다.

기술발전과와 공구생산과, 함유연직장, 열처리직장 등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수십여건의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으로 완전유압조종장치의 가공공정을 완성하였으며 바퀴테굴곡기를 비롯한 설비, 부속품들을 새롭게 제작하여 뜨락또르계렬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뜨락또르생산의 선행공정을 맡고있는 주물직장에서는 유도로와 자동흐름선 등 설비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주물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특히 함유연직장에서는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제품들을 손색없이 가공하여 제품의 질보장에 기여하고있다. 제관, 변속기, 치차직장의 로동계급은 계렬생산공정을 완비하는데 필요한 수천여종의 지구장비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형타직장의 로동계급도 가치있는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뜨락또르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기관실덮개와 운전실덮개 등을 잘 만들어 새형의 뜨락또르의 멋을 한껏 살릴수 있게 하고있다.

함유연직장 직장장 김동현은 《우리는 80hp뜨락또르생산과 관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완전히 가로막기 위해 그 무슨 〈제재결의〉요 뭐요 하며 미쳐날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짓뭉개버리며 뜨락또르를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생산에 열중하는 로동자들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

더 좋은 치과위생용품을 더 많이

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질이 좋아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공장에서 우리와 만난 지배인 리영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세상에 인민들이 리용하는 치약, 치솔에까지 관심을 돌리는 령도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놈들의 제재책동과 전쟁책동으로 나라의 정세가 그처럼 긴장한 속에서도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우리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주시였으며 완공된 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자신의 소원을 풀게 되였다고, 인민들의 무병장수를 위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놓고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토록 기뻐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과 맡은 일을 더 잘해야 하겠다는 마음속결의도 다지게 되였는데 그것은 자기만이 아닌 전체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여서 공장에서는 치과위생용품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우리는 공장에서 구축한 통합생산체계를 통해 생산현장과 생산실태를 한눈에 료해할수 있었다. 특히 시각적효과를 생동하게 나타낼수 있게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체계의 대면부를 현장조건그대로 설계하여 생산공정들의 실태를 제때에 장악하고 또 고장진단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설비의 정상운영을 확고히 보장하고있는것은 생산장성의 전제로 되고있었다.

더 좋은 제품을 내놓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성과가 컸다. 이곳 연구사들은 공장이 조업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벌써 10여종의 치약을 개발하였다. 그중에는 어린이치약과 함께 효소치약, 피로린산치약을 비롯하여 이발의 위생과 치과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리용되는 기능성치약, 치료용치약들이 있었다. 여러가지 함수약, 치솔들도 연구개발되였다. 이곳 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그 성과들에는 연구사들만이 아닌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집체적지혜가 깃들어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로동자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모든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자기 기대들에 완전히 정통하고 설비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치약쥬브직장이 서있다.

그에 대해 직장장 오광국은 과학기술에 힘을 넣고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의 하나이라는것을 직장종업원모두가 자각하도록 하고 그들속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벌려온 결과에 이룩된 성과라고, 보다는 공장에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말씀을 종업원들이 늘 가슴에 새기고 일해온데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인민을 어째보려는 미국의 책동이 지금 극도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자기 종업원들의 분노와 보복의지는 천백배에 달하였으며 자력자강의 증산투쟁은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고 하였다. 하기에 이곳 직장에서는 하반년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배출되였을뿐아니라 설비관리는 물론 새 제품개발에서도 앞장서는 그야말로 만리마속도를 창조하고있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드높은 열의는 응당한 결실을 보게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생산되는 제품들의 일부

교육환경과 조건을 일신하여

평양철도종합대학의 교육환경과 조건이 일신되여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대학에서는 현대적인 전자도서관과 실험실습교사를 훌륭히 건설한데 기초하여 그 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지금 대학의 전자도서관으로는 하루에도 많은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찾아오고있는데 그들의 반영이 매우 좋다.

우리와 만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 교원인 오순철은 지난 시기에는 최신과학기술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지금은 대학에 꾸려진 전자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의 시간에 신속정확히 받아보니 교수준비와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고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실지 그는 이로 하여 교육방법에 관한 가치있는 론문을 집필하였고 그 론문은 교육사업에 그대로 적용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그가 연구완성한 《전기견인실험장치》를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적성과들이 나라의 철도운수발전에 기여하였고 학생들의 실험실습교육에도 리용되고있었다.

전자도서관에서는 원격교육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었는데 수강자와 교원사이, 수강자들사이에 광범한 과학기술적토론과 론쟁이 진행되는가 하면 수강자들이 강의내용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요구에 따라 보고 자체로 실력판정도 받을수 있었다.

이어 우리는 도서관에서 동화상자료열람에 여념이 없는 대학연구사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은 이곳에 전자도서자료들과 함께 동화상자료들도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속에서 학위학직소유자들이 늘어나고 또 전국적인 과학기술축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은 전자도서관의 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런 이야기는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을 위한 건축물설계형성안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현대화를 위한 건물형성안을 작성하는데 참가하였다는 운수건설공학부 건축학과 학생들에게서도 들을수 있었다.

우리는 대학에 건설된 실험실습교사도 돌아보았다.

교사에는 수송지휘실습실, 철도기계실험실, 기관차동력장치실험실 등이 그쯘하게 꾸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한창 학생들이 실험실습에 열중하고있었다.

우리와 만난 기계공학부 학생들은 실험실습실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난 기간 선생님들과 함께 새로운 자동차, 뜨락또르 개발을 위한 실천에서 써먹던 일들에 대해 야야기하면서 그 과정에 자기들은 리론과 실천을 겸비하게 하는 실험실습교육의 중요성을 체험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심어줄수 있게 훌륭히 꾸려진 교사를 보며 그것을 확신할수 있었다.

지금 대학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가까운 기간에 교육환경과 조건을 보다 일신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있다. 그 목표가 수행되면 대학의 교육내용이 실용화되고 종합화, 현대화되여 학생들의 지적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며 지식을 더 빨리 체득하고 활용할수 있게 한다고 한다.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한다.

전자도서관에서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민족무용창조자들

국립민족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민족무용창작창조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에만도 그들은 민족적정서가 짙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민족무용들을 현실적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는 한편 무용조곡 《황금의 내 나라》와 음악무용시 《〈아리랑〉이 전하는 이야기》를 단 몇달어간에 훌륭히 창작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

무용조곡 《황금의 내 나라》만 보아도 조국의 산과 들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여러개의 장과 경으로 폭넓게 구성하고 그것을 민족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대춤동작을 배합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우리와 만난 배우 임충실은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창조력량이 적은데다가 빠른 기간에 두개의 작품을 동시에 완성해야 하는 조건이여서 일군들도 그래 배우들도 정말 드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저도 무용조곡의 서장에 출연해야 하였고 제1장 3경의 쌍무 〈창성은 무릉도원〉에서 할머니역도 담당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집단의 방조속에 민족적춤형식을 살리면서도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생활미감에 맞는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게 되였고 그것을 숙련시키며 작품을 완성해나갔을뿐만아니라 할머니의 성격에 맞는 여러가지 몸동작을 춤형상에 받아들여 진실성을 보장할수 있었다고 하였다.

상모춤

남성군무 《사냥군춤》

녀성군무 《돈돌라리》

녀성군무 《양산도》

이곳 창작가, 예술인들은 지난 시기 발전시켜온 민족무용 《소고춤》과 《소고와 상모》를 무용조곡의 제2장 4경의 혼성군무 《풍년벌의 농악소리》에 구현하여 작품전체에 민족적정서와 랑만이 흘러넘치게 하였다. 실지 이 작품에서 배우들이 흥겨운 농악장단에 맞추어 소고치기와 여러가지 동작을 수행하며 스물두발상모를 멋들어지게 돌릴 때면 관람자들은 흥취가 한껏 올라 절로 어깨를 들썩이군 한다고 한다.

그런 모습은 제3장 4경인 혼성군무 《〈이채어경〉 멋이로다》에서도 볼수 있다.

배우들은 선창마다 물고기가 그득히 쌓이고 포구마다 물고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광경과 어로공들의 로동생활의 기쁨과 랑만,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 등을 약동적이며 흥겨운 민족적춤가락에 맞추어 그리고 기백있는 현대춤동작을 배합하여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이 작품을 완성한 안무실장 김한웅은 관록있는 안무가로서 몇해전에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예술단성원들에게 자기가 창작한 작품인 무용 《마식령의 메아리》를 배워주고 지도하여 그들이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서 금상을 쟁취하게 하였다.

김한웅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내가 남달리 재능이 있어 성과를 거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춤가락이 집결되여있고 복잡하지도 않고 명백하며 익히기도 쉬운 우리 민족무용의 우수성이 그대로 성과를 낳게 한 비결이다. 내가 했다면 좋은 춤가락들을 찾아내고 창조적으로 리용하였을뿐이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훌륭한 민족무용을 보다 발전시켜나가는데 나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겠다.》

이런 열의는 지난 기간 민족적특색을 살린 작품마다에서 창작적대를 바로세우고 작품전반을 옳게 이끌어간 연출가들과 방대한 량의 무용음악편곡을 성과적으로 해낸 작곡가들 그리고 실지 연기로 민족무용작품들을 무대우에 실현시킨 배우들 누구나 없이 안고있었다. 하기에 지금 이곳 국립민족예술단의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드높은 창작창조기풍을 세우고 새롭고 특색있는 민족적내용의 작품창조에 달라붙고있으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무용조곡 《황금의 내 나라》의 한 장면

성경이가 받은 살림집리용허가증

새 집을 받고서

지난 4월 14일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배려하여주신 려명거리살림집리용허가증을 수여하는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것은 철거세대주민들중에서 제일먼저 연단에 오른 중학교 교복을 입은 녀학생이였다.

(아니 세대주나 어른이 아닌 녀학생이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다니?!)

그의 이름은 리성경, 올해 17살,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

성경은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눈물이 앞을 가리워 글자를 제대로 읽을수 없었다. 겨우 알아본것이 《현 리용자 이름 리성경, 직장직위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라는 글이였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성경은 왈칵 오열이 북받쳐 머리를 들수 없었다.

성경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범한 로동자였다.

성경이의 부모들은 그가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일군들은 성경이와 그의 오빠 성정이를 학원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하지만 성경의 아버지가 일하던 일터에서 로동자로 일하던 처녀 리설경이 그렇게 되면 나라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들의 언니, 누나가 되겠다고 나섰다. 하루일이 끝나면 설경의 발걸음은 자연히 성경이의 집으로 향했다. 설경의 어머니 리정숙도 이 사실을 알고는 아예 짐을 싸가지고 성경이의 집으로 왔다. 그는 성경이 오누이의 옷도 빨아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면서 그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경은 할머니에게 곁을 잘 주지 않았다. 성경은 룡악산에 야영을 갈 때에도 할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성경이 동무들을 통해 야영을 간다는것을 알고는 자기의 두 딸들을 《비상소집》시켜 밤새워 새옷과 신발, 양말, 간식 등을 준비하여주었다.

자기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

구역안의 일군들이 성경이의 집을 자주 찾는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성경이의 머리를 빗어주며 《성경아, 재미나게 놀고 오거라. 학생시절 남는건 야영생활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등을 떠밀어주었다. 이렇게 되여 성경은 남부럽지 않게 야영길에 오르게 되였다.

할머니(설경의 어머니 리정숙)손에서 성경이는 고급중학교학생이 되였고 그의 오빠 성정이는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그러던 주체105(2016)년 3월 어느날 성경은 자기가 살던 지구에서 려명거리건설이 진행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철거가 시작되였건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갈수 없었다.

평양에 친척은 하나도 없지, 보통강구역 신원동에 있는 리정숙할머니의 집에는 가정을 이룬 설경언니네가 살고있어 자기까지 가면 큰 부담이 될수 있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잠을 못 이루던 그는 뜻밖에도 문두드리는 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였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조선로동당 평양시대성구역위원회 책임일군이였다.

책임일군이 성경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던것이다. 그는 당일군의 집에서 1년나마 살았다. 하지만 그는 남의 집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일군도 일군의 안해도 그들의 딸도 성경이를 한집안식솔처럼 대해주었던것이다. …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4월 17일 려명거리의 새 집에 들어서던 성경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100여㎡되는 집의 방들과 부엌에는 텔레비죤이며 가구, 이불, 선풍기, 식탁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정용품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성구역의 당일군들과 그가 다닌 학교 교원들, 아직 낯도 익혀보지 못한 려명공업품상점과 려명식료품상점 등 여러 단위의 사람들이 저저마다 성경이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남몰래 가져다놓은것들이였다.

그날 저녁 리정숙할머니는 《리성경》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새겨진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보고 또 보며 잠들지 못하는 성경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아, 이 살림집리용허가증을 한생 마음속에 안고 살거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어머니당(조선로동당)의 품을 떠나서 우리모두가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103살, 복을 누리다

오늘 조국에서는 100살장수자대렬이 나날이 늘어가고있다.

그 장수자들속에는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강구역 은정동 9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103살 난 리향국할머니도 있다.

우리가 할머니의 집을 찾았을 때 맞아준것은 그의 며느리 리명숙(46살)녀성이였다. 며느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방에 들어섰을 때 할머니는 바느질이 한창이였다. 놀라와하는 우리에게 며느리는 할머니가 바느질뿐아니라 어떤 때에는 동자질까지 한다는것이였다.

리향국할머니

우리가 인사를 하자 할머니는 자리를 권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이랑 며느리랑 그냥 쉬라고만 하는데 어디 일손을 놓을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할머니가 하였다는 옷의 바느질자리를 손더듬해보았다. 바느질자리가 곱다는 우리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만을 지을뿐이였다.

우리가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동안 할머니는 전화로 동네로인들과 문안인사도 나누었으며 우리에게 시원한 들쭉단물까지 권하였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할머니가 준칙처럼 여기는 생활의 이모저모를 알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생일상을 받아안고

식사시간을 정확히 지키며 언제 한번 제정된 식사량을 적게 혹은 초과하지 않는것, 오전과 오후에 1시간정도의 산보를 꼭꼭 하며 저녁에는 텔레비죤을 시청하는것, 혹 몸이 아픈 경우에도 신약 한알, 주사 한대도 쓰지 않는것 등이였다. 그리고 찰떡과 돼지고기를 특별히 좋아하고 편식을 하지 않았다.

유감스러운것은 할머니에게 친자식이 없는것이였다. 하여 우리는 할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할머니의 지나온 과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수 있었다.

주체3(1914)년 함경남도 단천시 영평리에서 태여난 그는 일제의 군사적강점하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나라없는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에야 그는 비로소 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을 누릴수 있었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제에 의해 일어난 조국해방전쟁은 그의 마음속에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다. 그때 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가렬한 전쟁의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오로지 당(조선로동당)만을 믿고 전선원호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전후에도 복구건설에 한몸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그러한 그에게 나라에서는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식량과 땔감,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공급해주었다. 그리고 직장과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친부모, 친형제가 되여 그의 생활을 돌보아주었다.

그 나날 당시의 단천람사단과대학에 다니던 김민근이 할머니의 친아들이 되였다. 나날이 자기를 위해주는 나라의 고마움과 많은 사람들의 육친적인 사랑에 보답할 마음으로 그는 년로보장나이가 퍽 지난 후에도 어느 한 기관에서 일손을 놓지 않고 적은 힘이나마 사회와 집단을 위해 바쳐왔다.

할머니는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년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관심속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고있소. 담당의사선생이 한주일에 한번씩 찾아와 검진하고 보약을 가져다주지, 동네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하니 어찌 내가 오래 살지 않을수 있겠소. 정말이지 오늘 내가 100살을 넘기도록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즐기며 복을 누리고있는것은 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기때문이 아니겠소. …》

할머니는 주체103(2014)년 11월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100돐생일상을 받았다.

그에 대해 할머니는 온 나라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시며 평범한 늙은이의 생일상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가족과 함께

국가가 로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준다

-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부장 박영희와 본사기자와의 문답 -

기자: 오늘 조국의 로인들속에서 노래 《세월이야 가보라지》가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청춘의 활력에 넘쳐 다양한 정서생활을 하며 여생을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고있는 로인들의 모습을 본 해외동포들은 조국

이 펼치는 인민적시책에 대해 더 깊이 알고싶어한다.

조국에서는 년로자의 나이를 어떻게 정하고있는가?

박영희: 공화국은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이상의 공민을 년로자의 나이로 정하고있다.

년로자는 국가와 사회의 공고발전과 경제문화적재부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여온 앞선 세대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기자: 로인들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는가?

박영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전국로병대회를 열도록 하시고 전사회적으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기풍을 세워나가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년로자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정신육체적으로 더욱 건전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벌려왔다.

년로자보호사업이 활성화되고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가 세워졌으며 년로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년로자보호법》도 채택되였다.

부양의무자가 없고 자립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지장을 받는 년로자는 평양을 비롯하여 각 도에 훌륭하게 세워진 양로원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기자: 년로자들의 건강은 어떻게 보장되고있는가?

박영희: 년로자들의 건강을 보장하는것은 그들이 보람찬 삶을 누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은 년로자들이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년로자들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건강검진과 치료사업을 하며 왕진을 비롯한 의료사업에서 정성을 다하고있다.

그리고 년로자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여러가지 영양식품과 장수보약제, 보청기, 안경, 지팡이를 비롯한 보조기구와 회복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할뿐만아니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년로자들을 위한 대중체육활동을 조직하고있으며 90살이상의 년로자는 따로 정한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기자: 년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어떻게 보장하고있는가?

박영희: 국가에서는 년로자들이 여생을 보람있고 락천적으로 살아가도록 문화정서생활환경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우선 정권기관과 설계기관, 건설감독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년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체육오락기재와 회복치료기구를 설치하며 전쟁로병들과 년로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문화봉사시설을 수요에 맞게 꾸려놓고있다.

오늘 우리 년로자들은 공원, 유원지, 낚시터, 놀이터, 명승지를 비롯한 문화휴식장소들에서 예술활동, 체육오락, 휴양, 관광, 탐승과 같은 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기자: 년로자도 사회활동에 참가하고있는가?

박영희: 물론이다. 국가에서는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년로자가 사회활동에 참가하는것은 앞선 세대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경험, 민족문화와 풍습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업이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부문을 비롯하여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근무하고있는 년로자들가운데는 명예칭호와 학위학직을 소유한 지식인들과 공로자, 기능공들이 적지 않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는 지식있고 능력있는 년로자들이 젊은 시절의 열정을 안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 * *

부부탁구애호가

우리 조국에는 탁구, 롱구, 정구, 바드민톤과 같은 체육종목을 함께 즐기는 부부애호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2017년 봄철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에 참가하였던 중구역 오탄동 45인민반의 정성렬, 박진옥부부도 있다.

평범한 사무원들인 정성렬(43살)과 박진옥(38살)은 지난 5년간 부부탁구선수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다.

그들부부가 탁구애호가로 되게 된데는 남편 정성렬의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다.

11년전 어느날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였던 성렬은 자기의 애인인 진옥에게 탁구를 좋아하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 피아노를 배운 진옥은 가볍게 머리를 저으며 미소만 지었다.

사실 19살때부터 뒤늦게 탁구에 취미를 붙인 성렬은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탁구기술을 꾸준히 련마하여 대학적인 선수로까지 되였었다.

가정을 이룬 후 그들부부의 생활은 탁구로 하여 더욱 즐거웠다.

진옥은 일요일과 명절날이면 탁구장으로 향하는 남편과 걸음을 함께 하였고 그가 탁구애호가들과 경기를 할 때면 남편의 제일가는 응원자가 되였다.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는 누구의 강요나 통제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 아니였다.

몇해동안 남편의 훈련과 경기를 지켜보는 과정에 진옥은 탁구기술에 대한 파악이 차츰 생기게 되였으며 남편이 개인경기에서 1위를 하자 탁구를 배우고싶은 욕망도 커지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성렬은 진취성이 강한 진옥의 둘도 없는 감독이 되였다.

그 나날 그들부부의 정은 더욱 깊어져갔다. 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었으며 그 과정에 탁구기술도 늘어만 갔다.

그들부부는 탁구애호가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걸어다니는 장벽》이라는 별호로 불리우는 정성렬은 혼성복식경기때마다 뒤선에서 끈질긴 방어로 상대선수들을 제압하였으며 진옥은 앞선에서 불의적인 강타로 통쾌한 득점을 이루군 하였다.

안해 박진옥은 이렇게 말하였다.

《탁구는 우리 부부의 생활이고 기쁨입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2015년 봄철 장애자 및 애호가탁구경기에 참가한 정성렬부부(오른쪽)

진정을 바쳐가는 일군

평안북도 향산군의 지방산업공장들에 가보면 마음마저 상쾌해진다. 안팎으로 잘 꾸려지고 생산도 잘하고있는 그런 공장에서 거기에 바쳐진 사람들의 수고가 헤아려져 그 주인공을 찾게 되면 어느 공장에서나 향산군식료일용공업관리부 기술준비소 소장 리상호를 꼽는다.

우리는 그를 군의 종이공장 생산현장에서 만나볼수 있었다. 그는 생산설비들의 가동상태를 한동안 주시하며 무엇인가 수첩에 적고있었는데 후에 보니 수첩에는 이 공장의 설비만이 아니라 가구공장이며 기념품공장 설비들의 성능과 기술상태 등이 적혀있는가 하면 새로운 건물형성안도 그려져있었다.

우리가 그에게 공장의 건물형성에도 관심을 돌리는가고 묻자 그는 군안의 공장들의 발전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자기도 한때는 종이공장사람이였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그는 일본 고베시 나가따구에서 살다가 조국의 품에 안긴 사람이였다. 어릴 때부터 사물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데다가 무슨 물건이든 그 속내를 알고싶어 뜯어보고야마는 말하자면 배움에 대한 열의가 남달랐던 사람이라고 한다.

리상호

그런 그였지만 조국에서 그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서 로동생활과정을 통하여 전기, 기계설비 등에 정통한 후에 대학에 갈것을 계획하였고 또 그렇게 하였다. 그것은 그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준비되게 하는데서 옳은 선택이였다고 볼수 있다.

하기에 그는 기술준비소에서 일할 때부터는 어느 공장에서나 찾는 실력있는 일군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였으며 그도 사람들의 부름을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고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애썼다.

그는 말하였다.

《나를 내세워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집단의 힘과 지혜가 없이 성과란 기대하기 어려운것입니다. 그러니 집단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군안의 공장들에서 이룩한 성과속에는 해당 단위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힘이 깊이 스며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일군의 진정이 비낀 목소리였다.

아마 서로 돕고 위해주는것이 성과를 낳게 한 비결인지…

군의 종이공장과 가구공장로동자들은 자기 공장을 꾸리는 사업과 설비현대화에 바친 리상호의 헌신성과 진정앞에서 감동되지 않을수 없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일들을 상기하였다.

그때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강행군시기여서 부족한것도 많고 애로도 많았다. 그래서 나라의 방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리상호는 모든것을 제힘으로 하자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며 앞장에서 이끌어나갔다. 그는 나라에서 도와주면 쉬운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나라의 사정을 헤아릴줄 모르는 량심의 가책은 클것이라고, 제힘으로 현대화를 해야 나라에 보탬도 주고 해놓은 일에 대한 보람도 있는것이라고 하며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호소는 모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들은 일시나마 쉬운 길을 택하였던 자기들의 생각을 털어버리고 자기 힘과 지혜로 일떠서기 위해 떨쳐나서게 되였다.

그에 맞게 그는 예비를 최대한 찾아 리용하도록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이와 함께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설비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매번 어려운 기술적문제는 그가 도맡아 풀어나갔다. 한 공장도 아니고 여러 공장들을 맡아 그렇게 하자니 힘은 곱절이나 들었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렇게 공장이 하나하나 꾸려지고 설비현대화가 실현되여 생산이 정상화되였을 때 사람들은 모두가 만족해하였다. 하지만 리상호의 생각은 깊어졌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보다 혁신하자면 계속 이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였다. 하여 공장들에서는 더욱 분발하게 되였으며 성과에 토대하여 미흡한 점들을 찾아 퇴치하면서 계속 혁신할수 있었다.

새로 제작한 설비를 놓고

오늘도 여러 공장 사람들이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있다.

그는 숱한 발명과 창의고안을 했어도 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 한것으로 한 사람이라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자기의 진심을 다 바치는 참인간이라고.

리상호는 그런 사람이였다.

그는 그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그저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뿐이였다고, 공장사람들이 잘되고 나라가 부강하면 그만이 아닌가고 이야기할뿐이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리상호의 가정

조선속담(맹목성)

① 자기의 주견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덩달아 행동함을 비웃어 이르는 말.

②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에 쓸데없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 가시내가 오랍아 하면 머시내도 오랍아 한다

녀자가 《오빠》라고 부르면 남자는 《형》이라고 해야 할것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뜻으로 자기의 주견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덩달아 행동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남의 장단에 춤 춘다

- 눈먼 망아지 워낭소리 듣고 따라간다

자기의 주견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하는것을 비웃어 이르는 말.

- 우는 모퉁이인줄만 알고 운다

남이 하는것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따라한다는 뜻으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청맹과니처럼 맹목적으로 따라함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

* * *

상식

동맥경화의 징조

동맥경화의 징조는 다음과 같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특히 사람의 이름, 지명, 날자, 수자에 대해 기억했다가도 인차 잊어버리고 만다.

성격변화가 심해진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쉽게 격동된다.

손가락이 떨린다. 글을 쓰거나 저가락질을 할 때면 더구나 떨린다.

나이에 비해 사유가 둔해지고 행동이 굼떠진다.

때때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

간혹 피부우로 개미가 기여다니는듯이 근질근질한감이 있다.

* * *

고향소식

자력자강으로 약동하는 흥남

흥남이라 하면 조국인민들속에 잘 알려진 고장이다. 아마 이곳에 나라의 화학비료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가 자리잡고있기때문일것이다.

하기에 함경남도 함흥시 흥남구역을 소개하기 위한 취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찾은 곳도 바로 흥남비료련합기업소였다.

기업소는 한눈에 보기에도 몇해사이에 옛 모습을 알아볼수 없게 달라진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만부하로 돌아가는 설비들의 동음에서 우리는 비료생산자들의 창조와 노력의 드높은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기업소의 부원 지성민은 《지금 백년숙적 미제가 우리의 명줄을 끊어보겠다고 그 무슨 유엔 〈제재결의〉요 뭐요 하며 발광을 하면서 핵전쟁책동까지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지만 우리 흥남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올해 시비년도 비료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비료생산에서 계속 혁신하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바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기업소가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었다.

지난해 기업소앞에는 더 많은 주체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갈탄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정을 무연탄가스화로 전환하여야 할 과업이 나섰다. 기존방식대로 한다면 무연탄가스발생로를 새로 설계하고 제작하여야 했다. 거기에 드는 시간과 자재, 로력도 방대하였다. 그러나 기업소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갈탄가스발생로의 되돌이계통과 탄접수통을 비롯한 일부 공정들과 계통들을 개조하여 그대로 리용할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여 세계적으로도 처음일뿐 아니라 몇년이 걸려야 한다던 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지금은 더 많은 주체비료를 생산하고있다.

그것만이 아니였다. 최근 몇해동안 기업소에서는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기술개건과 촉매, 부속품, 부분품의 주체화, 현대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였다. 특히 기업소에서는 탄산가스정밀탈류제, 암모니아합성촉매를 비롯한 여러 촉매들을 주체화할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닦아놓았으며 촉매제조용설비들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비료증산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업소를 돌아보았다. 가스발생로직장, 1합성직장, 물전해직장, 등 기업소의 여러곳을 돌아볼수록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비료생산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출하장에는 이곳 로동계급의 자력자강의 산물인 비료마대들이 쉬임없이 벨트콘베아를 타고 흘러나와 차곡차곡 쌓이고있었다.

비료들을 가득 싣고 협동벌로 떠나는 차들의 모습을 바래운 우리는 이어 흥남구두공장을 찾았다. 공장의 구내에는 감나무, 수삼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들어차있어 마치도 공원이나 유원지에 들어선듯싶었다. 결불안이라고 현대적인 설비들로 장비된 생산현장들도 역시 문화적이였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심경희는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신발창형타와 중창형잡기형타를 새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설비개조를 진행하여 신발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장에서 생산되고있는 《령길》상표를 단 여러 제품들이 2월2일제품등록을 받았으며 제8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이곳 종업원들의 목소리에는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자랑이 실려있었다.

우리가 돌아본 흥남구역안의 피복, 식료 등 지방산업공장들모두가 그쯘하게 꾸려져있어 이곳 주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었다. 자체의 힘으로 기름생산공정을 개조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는 류정식료공장 종업원들의 기쁨넘친 얼굴에도 기술혁신과 설비현대화로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게 되였다는 흥남목제품공장과 흥남피복공장 생산자들의 목소리에도 흥남사람들의 류다른 긍지가 넘쳐있었다.

뿐만아니라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흥남유치원 어린이들의 북제창과 마전유원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의 발걸음을 끌어당기였다. 정말이지 흥남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동해의 쉬임없는 파도마냥 자력자강으로 약동하는 흥남사람들의 숨결이 우리의 온몸에 그대로 느껴졌다.

글 본사기자 진룡진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의 비료생산

흥남구두공장에서

흥남유치원 어린이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리춘자누이 앞

누이에게 보내오

누이, 그동안 잘 있었소.

평양에서 우리 형제들이 누이와 상봉하던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소. 그때 오래간만에 만난 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어도 정말이지 혈육의 정이 차넘치던 감격적인 상봉을 잊을수가 없소.

사람의 한생에서 반년은 비록 길지 않지만 혈육들이 서로 먼곳에 떨어져사는 우리 형제들한테는 몇년 맞잡이인것 같소. 아마 혈육들에 대한 그리움이 강렬해서 그런가보오. 나도 이젠 나이 일흔이 되고보니 혈육의 정이 더욱 그립소.

우리 가정은 여전히 잘 있소.

아들 명남이네도 그렇고 딸 명순이네도 다 잘있다오.

은정구역체신소에 다니는 명남이는 요새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소. 누이도 알고있겠지만 우리 구역에는 나라의 큰 과학연구기지가 있소. 명남이는 바로 이곳의 통신을 맡고있는 자기의 임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늘 직장에 붙어있다싶이하오. 요새는 구역안의 통신을 현대화하고 정보화하는데서 절실한 문제를 기술혁신해서 풀었다던지…

어쨌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우리 명남이가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실지 구실을 하면야 좋은 일이 아니겠소.

뭐니뭐니해도 우리 가정에서는 과학자인 사위가 그중 대견하오. 국가과학원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사위는 우리를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연구사업에 정열적이요. 사위가 연구사업으로 해서 출장이 잦은가보오. 한달전에는 신의주쪽의 어느 기업소를 다녀왔는데 얼마전에는 또 동해안의 어느 한 제련소에 출장을 갔소.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일들이 많다고 하면서 말이요. 언제인가 사위가 새로 연구한것을 현지에 도입했는데 성과가 큰것 같소. 그래 그곳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오고있다고 하오.

손자들도 잘 크고있소. 광명유치원에 다니는 현웅이는 큰 할머니가 보고싶다며 이제 누이를 만나면 자기의 노래와 춤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명순이네 아들 성룡이도 공부를 잘하오. 지금 선경제1중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얼마전에 있은 학교적인 학과목경연에서 1등을 했다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머리가 좋은것 같소. 앞으로 커서 아버지처럼 과학자가 되겠다는것이 그 애의 희망이요.

누이, 추석이 다가오니 한번 누이랑 같이 성천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묘소를 찾아 성묘를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오. 누이도 알겠지만 내 나이도 이제는 일흔이지 않소. 나이가 그렇다보니 자식들은 자꾸 일흔돐상을 차리겠다고 하오. 만약 일흔돐상을 받을 때 누이가 있으면 정말 기쁘겠소.

누이, 말이 길어지는것 같소. 이만 쓰겠소.

나와 우리 가정이 누이에게 부탁하고 싶은것은 부디 건강하라는것이요.

그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소.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1동 45인민반
리응호동생으로부터

인 상 기

조국은 제일 강하다

나는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경축행사에 대표로 참가하여 조국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것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였다.

사실 나는 로씨야에서도 늘 조국소식에 귀를 기울이고있어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조국에 대하여 그만하면 잘 알고있다고 자부하였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5돐을 경축하여 진행된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고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대해 내가 정말 다는 모르고있었다는것을 비로소 알게 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로케트들이 열병광장을 누벼나갈 때 나는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이 이 가슴에 가득 차올라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고 조국인민들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였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미제와 남조선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조선에 대한 제재요, 뭐요 하면서 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린다 하여도 조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의 발전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로씨야 깜챠뜨까주 엄길종

래일을 확신한다

나는 이번 조국방문기간에 려명거리를 돌아보았다.

높이 솟은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봉사시설들이 일떠선 려명거리는 보면 볼수록 장관이였다.

더우기 에네르기절약기술과 록색건축기술 등 최신건축기술들이 도입되였다고 하니 려명거리야말로 세계적수준의 멋쟁이거리가 아닐수 없다.

나를 놀라게 한것은 그토록 화려한 거리를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일떠세웠다는 사실이다. 글쎄 좋은 조건과 환경속에서 건설하였다면 몰라도 항시적으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위협속에 있는 조국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거리를 그처럼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다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내가 알고있기에도 려명거리건설이 갓 시작되였을 당시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나라들은 유엔을 내세워 조국에 대한 초강도제재를 선포하고 그 어느때보다 비렬한 제재와 압박소동에 매달리였다.

또 조국의 함북도 북부지구에 들이닥친 뜻밖의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국가적인 피해복구전투로 려명거리건설이 여러달이나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그처럼 준엄한 정세와 시련속에서 훌륭한 려명거리를 실지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일떠세운것이야말로 조국의 경제적잠재력과 위력의 과시이고 그 누구도 창조할수 없는 기적이며 조국의 승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조국은 앞으로 이런 련속적인 기적과 승리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정말이지 려명거리는 더 강대해질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

중국 료녕성 심양시 리춘자

애국의 마음에는 로화가 있을수 없다

지난 4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일군대표단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이며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 등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는 동포들의 얼굴마다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사라질줄 몰랐다.

최청산

그들이 려명거리 준공식에 참가하고 뻐스에 올라 호텔로 돌아올 때였다.

려명거리를 돌아본 소감으로부터 시작된 동포들의 이야기는 자연히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미사이의 핵대결에로 번져갔다.

그런중에서도 앞쪽에 앉은 한 동포의 이야기는 자못 전문가수준 못지 않았다.

《역시 고문아바이는 아는것이 많구만요.》, 《조국소식이나 정세강연이야 고문아바이를 당할 사람이 없지요.》

동포들이 저저마다 하는 소리였다.

뻐스안의 이목을 끌어당긴 동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고문인 최청산이였다.

현재 중국의 해림시에서 살고있는 그는 나이가 여든이지만 동포들과의 사업에서나 애국사업에서 언제나 청춘기에 있다고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지부가 활기를 띠고 움직이며 모든 일이 잘되는 모범지부로 된데는 그의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언제인가 지부의 학습실을 꾸리는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많은 동포들이 저저마다 방을 내겠다고 나서자 최청산동포는 그런 학습실이야 자기의 집에 먼저 꾸려놓아야 한다며 선참으로 발벗고나섰다. 사실 그의 집이라야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살고있는 크지 않은 집이였다. 하지만 그는 책장은 물론 비치할 한권한권의 도서들도 직접 자기 손으로 마련해놓았다.

그리고 학습준비를 착실히 해가지고 강사로도 자주 출연하여 동포들에게 조국소식이며 조국인민들의 애국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실지 그가 출연하는 학습시간에는 옛력사인물들에 대한 구수한 이야기도 있고 국제적인 정세흐름에 대한 분석적인 이야기도 있으며 체육경기들에 대한 흥미진진한 평론도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자주 동포가정들을 찾고찾으면서 지부를 더욱 화목하고 단합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어떤 때에는 수십리, 지어는 수백리씩 떨어져사는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지부사업이며 조국소식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하였다. 페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자주 병원출입을 해야 하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였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에게 힘을 준것은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이였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애국의 마음을 더 굳게 가지도록 해주었으며 자리를 차고 일어나게 하였다.

그 나날 해림시의 동포들은 조직과 조국에 대해 많은것을 알게 되였고 그의 정열과 진심에 감탄하며 뜨거운것을 삼키군 하였다.

꾸준한 노력에 의해 지부동포들의 수가 한명한명 늘어날 때마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을 얻은것처럼 기뻐하군 하였다. 그 과정에 지부는 동포들이 의지하는 조직,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한집안으로 되였다.

자기의 한몸과 가정사보다 동포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을 먼저 위하는 그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새 세대동포들이 조국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조국의 만경대며 주체사상탑, 묘향산과 판문점 등을 찾았고 때로는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집에서 마련한 자금을 서슴없이 내놓기도 하였다.

또 어느해인가는 중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의 한 농장을 찾으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워 수십기의 공화국기발을 만들어가지고 답사단을 조직하여 장군님의 발자취가 깃든 로정을 따라서기도 하였던 그였다.

그러한 그에게 많은 동포들이 인제는 나이도 많은데 쉬염쉬염 일하라고 말한다.

그럴 때면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육체에는 로화가 있지만 애국의 마음에는 로화가 있을수 없다.》

오늘도 그는 열렬한 애국의 의지를 안고 새 세대동포들을 애국위업실현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변진혁

자기의 힘으로 일떠서는 나라

나는 근 30년만에 고국을 다시 찾아보았다.

그동안 중국에서 신문과 텔레비죤으로 고국의 발전모습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군 하였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보니 그동안 정말 천지개벽되였다.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오는 순간부터 나는 자기의 힘으로 새것을 창조하며 끝없이 비약하는 고국의 숨결을 느낄수 있었다.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펼쳐진 마을들, 바둑판처럼 번듯하게 째여진 농장벌, 맑은 물 출렁이는 강을 따라 계단식으로 세워진 발전소들, 활력에 넘쳐있는 공장, 기업소들…

평양에는 거리들과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이 훌륭히 일떠서있었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장들뿐아니라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류경치과병원, 옥류아동병원 등도 손색없이 세워져있었다.

환하고 깨끗한 거리에 나서서 보니 여러가지 승용차들과 뻐스들이 부지런히 오고갔고 사람들의 밝은 미소를 보면 누구라 없이 더 좋은 래일을 꿈꾸고있는듯 하였다.

이번 고국방문기간에 우리 로인협회참관단 성원들은 금강산관광의 길에도 올랐다.

금강산관광은 2박3일이라는 길지 않은 날이였지만 참으로 인상깊었다. 70~80고령의 로인들이 젊은이들 못지 않게 만물상과 구룡폭포를 보려고 등산로정을 끝까지 밟았으며 전기간 언제나 청춘의 희열에 넘쳐있었다.

나의 입가에서는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절승경개 이뤘느냐라는 노래가락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이렇게 머리에 흰서리를 얹고 고국땅을 다시 밟고보니 왜 더 일찍, 더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가 하는 후회가 없지 않다.

실로 고국은 오늘날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고있는 유일무이한 나라로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다. 하기에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도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으로 어깨가 으쓱해지군 한다.

나는 고국이 지금과 같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최상의 수준에서 발휘되였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예로부터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부지런하고 순결무구한 조선민족은 한강토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우수한 민족문화와 풍습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던 하나의 단군민족이 국력이 약했던탓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였으며 미제의 침략전쟁으로 강토가 페허로 되고 핵공갈에 의해 부모, 형제, 친척들이 북과 남, 해외로 뿔뿔이 갈라져 장장 수십년세월을 헤여져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떼래야 뗄수 없고 갈라질래야 갈라질수 없는, 헤여져서는 안되는 하나의 민족이 바로 우리 조선민족이다.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느라면 자연히 아버지생각부터 떠오르군 한다.

한것은 고향이 평안북도 태천인 아버지가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 어린 나이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 고향을 떠나 중국 흑룡강성 연수현으로 옮겨와 살았기때문이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 뼈빠지게 온 한해 농사를 지었어도 가을이 오면 일제와 지주에게 낟알을 몽땅 빼앗기고 기아와 빈궁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였던 아버지의 가정이였다. 그것은 비단 우리 아버지의 집뿐만이 아닌 조선민족 누구나가 겪은 고통이였고 슬픔이였다.

나라없던 지난 세월 조선사람들 누구나가 강요당하였던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것이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나날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고국의 사회주의는 반드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을 자력자강의 무쇠주먹으로 짓부시며 통일의 날을 앞당겨올것이다.

나는 우리 로인협회의 성원들이 긍지높은 조선민족의 한 성원답게 민족을 위하여 여생을 다 바쳐나가도록 적극 이끌어나가겠다.

중국 흑룡강성 할빈지구 로인협회 회장 백계준

[주체105(2016)년 10월]

고국방문

칠보산에서 보낸 4박5일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대표단 -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대표단이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4박5일동안 함북금강으로 알려진 칠보산을 탐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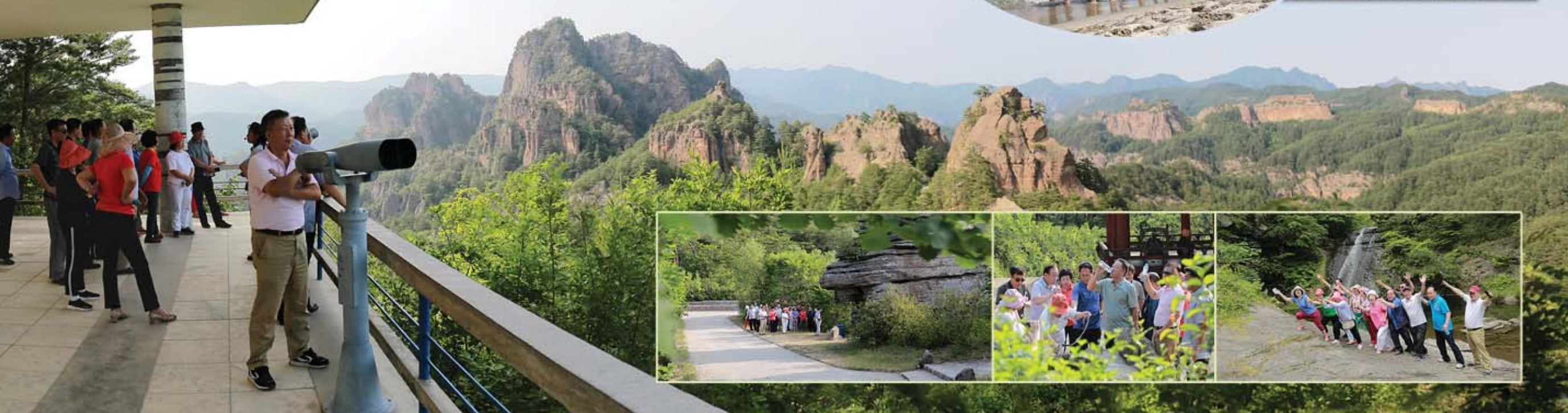
하늘길, 뻐스길로 단숨에 칠보산에 다달은 대표단성원들은 진귀한 일곱가지 보물에 비기여 이름 지어진 칠보산의 내칠보와 외칠보, 해칠보를 돌아보고 염분혁명사적지와 집삼혁명사적지, 김정숙료양소를 참관하였다. 선녀들이 하늘로 올랐다는 승선대며 가지가지 옛 전설이 깃든 례문암, 가마바위, 덕골폭포, 만물상 등이 있는 내칠보와 외칠보 등을 탐승한 동포들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암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들을 보았으며 해칠보의 절벽과 기묘한 섬바위들앞에서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안미자동포는 《칠보산경치는 많은 돈을 내고도 보기 힘들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은정속에 이렇게 처음 와보았는데 과연 절승이다. 남녘의 인민들도 다같이 칠보산에 와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통일애국사업을 더 잘해나갈 결심이다.》고 하였다.

허상숙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강산이나 묘향산은 여러번 가보았지만 칠보산에는 처음 와본다. 자연경치가 참으로 특색있다. 민박숙소가 인상깊은데 집주인과 한집안 식솔이 되여 다같이 앉아 특산음식들을 맛보고 밤깊도록 다정하게 윷놀이도 즐기니 정말 좋았다.》

칠보산관광길에 올랐던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대표단 동포들모두는 4박5일간은 비록 길지 않았어도 조국산천의 귀중함을 알게 해준 잊지 못할 나날로 추억할것이라고 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조국에서의 관세부과에 대하여

관세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은 수출입물자들에 관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이는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국가활동이다.

관세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법, 세관법시행규정, 세관법시행규정세칙, 관세률표, 라선경제무역지대세관규정과 그 시행세칙, 부문별관세 및 감독규정 등에 구현되여있다.

조국에서는 관세부과대상을 국경을 통과하는 짐과 운수수단, 국제우편물, 려행자의 휴대품으로 규정하고 국경이나 관세경계선을 통과한 물자들의 사용과 소비를 기준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있다.

관세부과기준은 수출입화물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대외경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조건에서 관세부과기준가격을 수출화물인 경우에는 국경인도가격으로, 수입화물인 경우에는 국경도착가격으로 정하고있다.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률은 수출품과 수입품으로 가르고 항목들에 따라 해당한 관세률을 관세률편람에 반영하여 적용하고있다.

여기에서 수입관세률은 국제상품분류목록을 참고로 하여 세률항목을 구체화하는 방향에서 우리 나라 특성에 맞게 세부화되여있으며 매 항목에 해당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률표에 반영되여있다.

수입관세률의 상품분류는 국제적으로 널리 리용되는 《상품명칭 및 번호조절제도》(HS)를 받아들여 조국의 조건과 환경에 맞게 상품을 분류한 무역상품분류부호와 일치시키였다.

수입관세률의 매 항목의 세률수준은 조국의 관세제도의 요구와 국제적수준을 고려하여 규정하고있다.

조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생산능력이 있지만 원료, 자재부족으로 생산을 정상화하지 못하여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수입물자들에 대하여서는 무세 또는 낮은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그리고 현재 조국에서 생산보장하거나 생산할수 있는 물자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하게 제기되지 않는 물자들은 높은 세률을 적용하고있다.

또한 수출관세는 나라의 자원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강철생산원료, 산림자원, 수산자원, 지하자원들과 그밖에 수출을 통제하여야 할 중요제품들에 적용하는 수출관세률표에 반영되여있다.

수출관세는 수산물, 약초류, 목재류, 정광류, 제철원료, 강철제품, 주물 및 주철제품 그밖의 물품 등 8개 품종에 20여개의 항목에 한해서 적용한다.

국제우편물과 려행자휴대품은 그 품종과 수량이 국제우편물과 려행자휴대품으로 들여오거나 내갈수 있는 물품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가적조치에 따라 반입을 제한하게 되여있는 국가통제품들을 특별히 따로 규정하여 세률을 높이 정하고있다.

조국에서는 다음으로 나라의 정치, 경제적요인과 대외경제관계를 고려하여, 국제관세감면규정을 참고로 하여 관세감면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일부 수출입물자들에 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관세감면조치를 실시하고있다.

우선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단체에서 무상으로 보내는 물자와 판매하지 않는 국제전람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반출입물자는 관세를 면제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반출입물자에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물자와 국내투자가가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여 출자하는 물자, 생산과 건설,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가 속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한 원료, 자재, 부분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구입한 물자를 가공하지 않고 수출할 때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보세물자들과 가공무역, 중개무역, 중개수송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들은 관세를 면제한다.

또한 특수경제지대의 반출입물자에 대해서는 지대밖의 다른 지역들의 수출입물자에 실시하지 않는 특정한 관세감면을 실시한다.

인민경제대학 교원 리연희

고려의 과학기술 (1)

고려시기 국토의 통일이 실현되여 민족이 한 강토안에서 생활하게 된 유리한 환경속에서 과학기술발전에서는 큰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고려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출판인쇄기술을 발전시키고 세상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우수한 고려자기를 만들어낸것이다.

고려에서는 이미전부터 써오던 목판인쇄 및 나무활자제조와 금속화폐의 주조기술에 토대하여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고려의 관료이며 문인인 리규보(1168년-1241년)의 문집인 《동국리상국집》(출판년도: 1241년, 1251년)에는 그가 쓴 《고금상정례》의 서문이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이 책을 금속활자로 찍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1239년에 찍어낸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서문에 의하면 본래 금속활자본으로 된 이 책을 나무판으로 다시 출판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고려에서 금속활자는 금속화폐가 대대적으로 주조되던 때인 12세기 전반기에 발명되여 사용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려에서는 금속활자에 의한 출판업도 발전하였다. 1377년 금속활자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을 인쇄하였는데 이 책의 하권이 1972년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주최의 《책의 력사》종합전람회에 출품되여 세계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으로 평가되였으며 금상을 수여받았다.

고려시기 출판인쇄기술이 발전하였다는것은 판목 8만여매를 조각하여 《팔만대장경》과 같은 방대한 량의 불교경전을 출판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고려시기 인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제지기술도 매우 발전하였다. 고려종이는 그 질이 매우 우수하여 외국에 널리 수출되였는데 동방 여러 나라들에서 제일이라고 높이 평가되였다.

고려사람들은 앞선시기의 도자기제조기술을 이어받아 자기그릇생산에서 우수한 기술을 창조하였다. 고려의 기술자, 수공업자들은 당시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지 못하는 비색자기와 독특한 무늬박이수법을 적용한 무늬박은 푸른 자기를 생산하였다. 그들이 만든 자기들은 형태와 무늬가 또한 매우 다양하였다.

고려에서 생산된 훌륭한 자기들은 《고려청자》라는 이름으로 당시 외국에 널리 퍼졌으며 나라의 명성을 온 세상에 떨치였다.

고려시기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천문학, 기상학, 력학, 의학, 지리학 등도 한계단 더 높이 발전한것이다.

개성시 만월대 서쪽에 남아있는 천문대유적인 첨성대는 고려시기 천문학과 기상학이 정연하게 발전되여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151년부터 태양흑점을 관측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려사》 천문지에 기록된 약 50건의 흑점관측자료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전하는 흑점에 관한 기록으로서는 매우 오랜것이다.

고려에서는 이러한 천문, 기상관측사업에서의 성과에 기초하여 력학이 발전하였다. 당시 학자들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력서를 편찬하였으며 14세기 중엽 강보는 《수시력첩법립성》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력법계산에 필요한 수표들을 만들어 묶어놓았다.

고려시기 의학도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다.

봉건국가는 과거제도를 통하여 의학자들을 양성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들에 약점을 두어 그 지방의 약재들을 수집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의학자들이 나왔고 그들은 당대의 이룩된 의학적성과들을 개괄하여 기록으로 남기였다. 고려시기 대표적인 의학책들로는 11~12세기에 편찬된 침구학책인 《황제침경》, 《제중립효방》, 병에 대한 치료법을 간명하게 적은 《어의촬요방》, 국내의 고유한 약재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쓴 《향약구급방》, 《삼화자향약방》, 《향약간이방》, 《향약혜민경험방》 등이 있다. 당시 여러가지 의학서적들과 의술은 중국 송나라를 비롯한 린근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여 고려의학의 높은 발전수준을 시위하였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부교수 주성철

애국의 마음이 낳은 《단기고사》

698년 발해를 세운 초대왕 대조영(?-719년)은 자기가 직접 붓을 잡고 국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단군의 사적을 편집한 《단군봉장기년》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그 책의 서문을 학자인 동생 대야발에게 짓도록 하였다. 서문을 맡은 대야발은 생각이 많았다. 그것은 책의 내용에서 어설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기때문이였다. 그럴수록 평양성을 점령하고 국서고를 모조리 불살라버린 외적들이 증오스러웠다.

그는 발해왕 대조영에게 이렇게 아뢰였다.

《폐하, 빈구석을 메꾸어야 할줄 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단군의 성업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사람들은 단군조선의 력사는 물론 시조도 모르게 될것이옵니다. 이는 참말로 무서운 일이나이다. 소신이 생각한바가 있사온데 10년을 뜻을 두고 단군성왕의 사적을 일일이 모아 그 력사를 편수함이 어떨가 하나이다.》

대조영은 즉시 어명으로 재능있는 사가들과 문장가들로 《단기고사》편수집단을 무어주고 그 책임자로 자기의 동생 대야발을 임명하였다.

대야발은 력사편수집단을 이끌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일대에 대한 편력을 진행하였다.

단군이 첫 수도로 정하였던 평양의 성터와 궁전자리, 단군릉과 여러 왕들과 왕족, 귀족, 관료들의 돌무덤 등 유적들을 돌아보았다.

선조의 력사를 더듬어가는 야발의 얼굴에는 나날이 주름이 질어가고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수행원들은 야발의 백발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으며 그럴수록 한생의 허무함에 절로 눈물이 났다.

단지 몇권의 책을 엮는것때문에 거의 10년째 고향에 한번 가보지 못한 그들이였던것이다.

그들중에는 대야발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일행이 탄 배가 홀한하에 도착했을 때 수행원들의 심정은 더욱 그러하였다. 그것은 홀한하를 거슬러올라가면 왕도(수도)에 이르기때문이였다.

수행원들의 마음속생각을 읽은 대야발은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탓하지 않을것이니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자는 배에서 내리도록 하라.》

모두가 침묵을 지키는 속에 한관리가 주춤거리며 나섰다.

《이제 전하께서 사지판같은 지역으로 가시겠다 하온데 안되옵니다. 그 험지로 굳이 가시려하지 마시고 신들과 함께 돌아가시오이다.》

눈물을 뿌리며 애원하는 수행원들을 굽어보는 야발의 눈가에도 핑그르르 물기가 돌았다. 그는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잡으려는듯 지팽이에 몸을 싣고 힘겹게 일어섰다.

《그대들도 이번에 돌궐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이주해갔던 사람들을 만난 일을 기억하고 있을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던 말이 생각난다. 나라를 잃으니 국서고도 지켜내지 못하고 조상의 무덤도 란도질을 당했다고, 선조들의 사적을 꼭 다시 찾아달라고 하던 당부를. 그 당부를 실천하는 길만이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라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는 길이요, 후손들에게 애국의 넋을 물려주는 길이다.》

그는 말을 끊고 한숨 돌리려는듯 사위를 둘러보다가 계속하였다.

《이 강 저쪽도 원래는 우리 민족의 땅이였다. …우리는 저 땅 곳곳에서도 선조들의 사적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대야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행원들모두가 그의 앞에 부복하고 한목소리로 다짐하였다.

《전하가 가시는 길이라면 소신들은 하늘끝에라도 가겠사오이다.》

《고맙다. 그대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다.》

순국할 각오를 지닌자 어찌 붓대로 애국할수 없으랴.

이렇게 되여 13년간의 피타는 노력끝에 대야발과 그 편수집단은 끝내 《단기고사》를 재편찬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대야발은 《단기고사》를 다시 편찬하게 된 기쁨에 목메이며 서문을 지었다. 서문에서 그는 발해의 창시자인 대조영은 하늘의 자손으로서 단군의 계통을 이었다고 함으로써 발해가 바로 조선민족이 세운 나라라는것을 명백히 밝혔다.

본사기자

> **상식**
> ## 가호둔전
>
> 가호둔전이란 고려때 봉건국가가 매 세대들에 낟알종자를 나누어주고 가을에 가서 그 몇배를 빼앗아가던 착취방식을 말한다.
>
> 둔전이란 원래 봉건국가가 군량을 보충할 목적으로 군인들에게 경작시킨 국가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14세기 중엽부터 봉건국가는 실지로 둔전을 경영하지 않고 가호둔전이란 명목밑에 봄에 얼마간의 종자곡식을 군대가 아닌 일반농민들에게 세대단위로 내리먹이는 방법으로 나누어주고 가을에 가서 그 몇배나 되는 낟알을 략탈해갔으며 나중에는 종자를 나누어주지도 않고 가을에 무작정 낟알을 빼앗아갔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가호둔전에 의한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
> 봉건정부는 가호둔전을 더는 유지할수 없어 1375년에 폐지하였다.
>
> *　*　*

돌 고 개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거의 끝나갈무렵이였다.

함경도에 쳐들어왔던 왜적들은 곳곳에서 일어난 의병들과 인민들의 반격에 의해 남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는 나베시마의 부대도 있었는데 적들이 덕봉땅에 이르렀을 때에는 거의 맥이 진했다.

왜적들의 이런 기미를 눈치챈 의병대장 정문부는 그때 덕봉땅에 있던 리배에게 패주하는 적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게 하였다.

리배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큰 잔치가 벌어졌다. 적들은 며칠동안 굶었던 판이라 차려놓은 음식을 보자 게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특별히 독하게 만든 술에 적들은 그만 곤죽이 되여버렸다.

그 사이에 의병들은 왜적들이 지나갈 길목인 고개길 숲속에 숨어들었고 지방인민들은 의병들을 도와서 바위와 돌멩이들을 령마루까지 날라다놓았다.

해가 질무렵이 되여서야 나베시마를 비롯한 왜적들은 비틀거리며 길주를 향하여 떠났다.

왜적들이 고개길에 다 들어섰을 때였다. 난데없이 고개마루턱에서 바위와 돌멩이들이 바람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지고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피할 사이도 없이 바위돌과 돌멩이에 얻어맞아 련이어 뒤번져졌다. 왜적들이 급해맞아 숲속으로 피해 들어가니 이번에는 창끝과 칼날이 나타나 적들의 옆구리와 목덜미를 날쌔게 찌르고 잘랐다.

적들은 그제야 계교에 걸려든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조총을 마구 쏘아대고 칼을 휘둘러댔으나 헛총질, 헛칼질을 했을뿐 잠복한 의병들의 손에 줄줄이 쓰러졌다.

그러나 악착스러운 적들은 의병의 력량이 약한것을 눈치채고 고개마루턱을 향하여 기여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이 지방출신 의병 김영덕이 인민들과 같이 숨어서 올라오는 왜적들을 긴 창으로 찔러 고개벼랑밑으로 내동댕이쳤다.

싸움은 새벽녘까지 계속되였다. 수많은 왜적들이 고개에서 녹아났으나 원래 수가 많은 적들은 계속 밀고올라왔다. 싸움은 점차 불리해갔다.

영덕은 줄곧 앞장에 서서 창날을 번개처럼 번쩍이며 적을 무찔렀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앗!》하고 쓰러졌다. 왜적 조총수가 눈에 띄게 용감한 그를 쏘았던것이였다. 적들은 이 틈을 타서 무리로 기여올라왔다.

정황이 위급하게 되였다.

이때 영덕이 다시 일어나 아픔을 무릅쓰고 창을 휘둘렀다.

의병들과 인민들의 공격으로 왜적들은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무리로 쓰러졌다. 여기저기에 왜적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덮이였다. 적들이 전멸되고 승리의 함성이 고개마루에 퍼질때 영덕은 사람들의 품에 안겨 영영 숨을 거두고말았다.

그후 이곳 인민들은 이 고개마루에 장군총(장군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으며 이름없던 이 고개를 돌고개라고 부르며 오랜 세월을 두고 조국을 지켜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야기를 전해오고있다.

*　*　*

> **상식**
> ## 고려동경
>
> 고려동경은 고려시기 동으로 만든 거울이다.
>
>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동경유물은 대부분이 무덤껴묻거리이며 일부가 절간에 있던것들이다.
>
> 고려동경은 변화무쌍한 형태와 여러가지의 세련된 무늬 그리고 높은 금속가공기술로 하여 유명하다.
>
> 거울의 형태는 둥근것이 기본이다.
>
> 그밖에 네모난것이 있는데 여기에 변화를 주어 귀접은 4각형과 8각형, 전통적인 8릉형과 8잎꽃형 그리고 4, 6, 12, 16릉형과 4, 5, 6잎꽃형 등이 있다.
>
> 특수형으로서 항아리, 종, 병 등의 모양을 본딴것과 자루가 달린것들도 있다.
>
> 거울의 뒤면에는 여러가지 무늬가 장식되여있으며 그 중심에 한개의 거울코가 있는것이 보통이다.
>
> 무늬들은 동물무늬, 식물무늬, 풍경무늬, 환상무늬, 건축무늬가 기본을 이루면서 그밖에 춤 또는 사냥 등을 소재로 한것들도 있다.
>
> 이러한 장식무늬들은 거울의 형태에 알맞게 섬세하고 정교한 부각수법을 쓰면서도 아름다운 선들로 장식됨으로써 그의 예술성이 한층 높다.
>
> 고려동경에는 무늬없는것과 글자를 새긴것도 있다.
>
> 고려동경은 개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였으며 국보로 보존되고있다.
>
> *　*　*

개성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11)

- 개성성 -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과정에 세계에 자랑할만 한 우수한 문화유산들을 수많이 창조하여왔습니다.

그것들중에는 주체102(2013)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성도 있습니다.

개성성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성입니다.

개성성은 황성, 궁성, 내성, 외성(라성) 등 네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황성은 둘레가 4.7km로서 고려성립 이듬해인 919년에 이미 있던 발어참성을 그대로 리용하면서 북쪽벽만을 새로 쌓은 성입니다. 황성은 이름그대로 황제가 있는 성이라는 뜻으로서 고려의 황제국적인 지위를 잘 엿볼수 있게 합니다.

계몽기가요 《황성옛터》는 바로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개성의 옛 황성터에 비추어 망국의 설음과 조국애를 노래한것입니다.

궁성의 둘레는 2.17km로서 919년 궁전건축당시 동시에 쌓아졌습니다.

궁성은 송악산 남쪽에 자리잡고있던 고려의 왕궁 만월대를 둘러싼 토성으로서 황성안에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외성의 둘레는 23km로서 그안에 궁성, 황성, 내성을 가진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수도성중의 하나였습니다. 외성은 강감찬(948년-1031년)장군의 발기밑에 1009년부터 1029년까지 21년간에 걸쳐 건설되였습니다.

외성건설에는 많은 로력이 동원되였는데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장정로력이 무려 30만 4 400명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외성의 25개 성문가운데서 서쪽의 대문인 오정문이 가장 크고 화려하였습니다. 당시 항구였던 례성강어구의 벽란도를 보고 황홀해한 외국사신들과 상인들이 2층문루를 가진 오정문에 들어서면서 다시금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외성이 쌓아짐으로써 수도방위가 한층 강화되게 되여 당시 사람들은 그 성이 강철같이 견고하다는 뜻을 담아 《금강성곡》이란 노래까지 지어 자기들의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외성이 건설됨으로써 개성성은 완성된 수도성이였던 고구려 평양성과 같은 도성의 면모를 비로소 갖추게 되였습니다.

둘레가 11.2km인 내성은 외성안의 일부 구간을 막아 쌓은 성입니다. 내성은 성생김새가 반달모양같이 생겼다고 하여 반월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처럼 개성성은 고구려시기 평양성의 형식을 훌륭히 계승한것으로서 단일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입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룡진

추석날의 송편

맑고 푸른 하늘이 높게 들린 가을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은 《추석이 언제인가?》 하고 달력앞에 서서 날자를 꼽아봅니다.

《10월 1일이 음력으로 8월 12일이니까 13, 14, 15. 아, 4일이로군.》

바로 10월 4일이 올해의 추석날입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있다싶이 추석은 음력 8월 보름날로서 우리 나라 민속명절들중의 하나입니다.

추석은 글자그대로 달밝은 가을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추석을 일명 가위날,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가위날이라는 말에는 아름다운 날이라는 뜻이 담겨져있습니다.

낮이면 가없이 펼쳐진 하늘이 푸르고 밤이면 쟁반같은 둥근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가을밤의 정서를 돋구어주는 추석날.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해농사를 다 짓고 가을걷이를 앞둔 시기인 추석날에 햇낟알로 음식을 정히 지어가지고 조상들의 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름내 자라난 풀을 깎고 음식을 차려 절을 한 다음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한해농사를 지어 먼저 조상에게 드리고야 먹을수 있다는 례의풍속에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음식은 제일먼저 여문 곡식들을 골라 거두어서 지었습니다.

오늘도 조선사람들은 민속명절인 추석을 크게 쇠고있습니다.

추석날의 음식으로서는 햇곡식으로 만든 설기떡, 찰떡 등을 꼽을수 있지만 대표적인 음식은 송편입니다.

그럼 이번호에 우리는 추석음식가운데서 대표적인 송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송편이란 흰쌀가루를 익반죽하여 소를 넣고 반달모양을 내여 빚은 떡을 솔잎을 편 시루에서 쪄낸 음식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떡사이에도 솔잎을 펴는데 그것은 떡의 형태를 보존하고 솔잎에서 나는 고유한 향기와 여러가지 영양성분을 송편에 더하기 위한것입니다.

송편은 만들기 쉬울뿐아니라 팥, 당콩, 깨, 고구마, 밤 등 다양한 소를 넣어 맛을 여러가지로 낼수 있으며 떡반죽에도 쑥, 취 등의 나물이나 색소를 넣어 색갈과 향취를 다채롭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반달형뿐아니라 조개형 등 여러가지로 빚어 만들수 있습니다.

송편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먼저 솔잎을 따서 티를 없애고 끓는 물에 데쳐 그늘에서 새파랗게 말립니다.

흰쌀가루를 고르로운 채에 쳐서 익반죽(가루에 끓는물을 두면서 반죽하는것)합니다. 한편 팥을 타개여 30℃의 물에 4~5시간 담그어 불구었다가 껍질을 갈라내고 적당한 량의 물에 넣어 푹 삶아냅니다. 여기에 사탕가루와 소금을 입맛에 맞게 두고 절구에 찧어 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소가 준비되면 익반죽한 반죽물을 밤알만 한 크기로 떼여 둥글게 빚어 왼손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돌려가면서 눌러 펴서 지짐모양의 형태가 지어지면 소를 적당히 놓고 겹싸면서 량끝이 약간 뾰족하면서도 통통하게 반달모양으로 빚습니다. 시루에 깨끗이 씻은 솔잎을 한벌 깔고 빚은 떡을 차례로 올려놓습니다. 그우에 다시 솔잎 한겹을 펴고 떡을 또 올려놓는 식으로 반복하여 시루를 채운

조국의 천연기념물 (9)

산좋고 물맑은 자강도는 하나의 명승지로서 천연기념물도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곳의 천연기념물들인 오가산원시림, 오가산주목, 전천돌부채꽃군락, 전천전나무, 앙토비슬나무, 가산령잣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가산원시림은 자강도 화평군 일대에 펼쳐져있습니다.

오가산원시림은 식물의 종구성이 다양하고 우리 나라 아한대성식물분포구와 온대성식물분포구의 경계를 이루므로 식물분포의 법칙성을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원시림은 우리 나라에서 그 형성력사가 가장 오랜 원시림의 하나로서 면적은 1 740여정보에 달합니다.

주요수종은 전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피나무, 주목 등이며 주요약용식물은 만삼, 당귀, 오미자 등입니다. 이밖에도 먹이식물, 풍치식물, 향료식물, 산나물 등이 퍼져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원시림에는 1 100여년 자란 주목과 550년 자란 잣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오가산주목은 오가산원시림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라고있는 주목가운데서 제일 크고 오래 자란 나무로서 오가산원시림의 자연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나무로 되고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6m이고 밑둥둘레는 3. 7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3. 2m, 나무갓직경은 7m입니다. 열매는 대체로 2년에 한번씩 달리고 줄기와 목질이 붉은색을 띠므로 적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가 자라고있는 지대의 해발높이는 940m입니다. 주변에는 분비나무, 피나무, 느릅나무, 사스레나무 등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습니다.

전천돌부채꽃군락은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의 비삼봉중턱 북쪽비탈면에 분포되여있습니다. 면적은 1. 5정보이며 해발높이 380~500m계선에 분포되여

오가산원시림

다음 찝니다. 김이 오르면 찐 송편을 푹 뜸들입니다. 다음 찬물에서 송편을 2~3번 헹구어 물기를 찌웁니다. 송편을 찬물에서 헹굴 때 물을 자주 갈아주어야 떡이 매끈매끈하게 됩니다. 식힌 송편에 참기름, 좋인기름을 윤기나게 바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누구나 손수 만들어먹을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하얗고 윤기가 도는 반달모양의 떡을 한입 떼여물면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 팥이나 당콩과 같은 고물의 달큰한 맛과 은근하게 풍겨오는 향긋한 솔잎향기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려 그야말로 떡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을수 있는 송편입니다.

그럼 이제 맞게 되는 추석날, 여러분의 가정들에서 정성다해 만든 송편을 맛있게 들고 밤하늘의 둥근달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연옥

오가산주목

전천전나무

가산령잣나무

있는데 이 돌부채꽃은 해발높이 380m지대에 집중군락으로 퍼져있습니다.

전천돌부채꽃군락은 수직적분포의 제일 아래에 있는것으로 하여 생태학적연구에 의의가 있으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여 보호관리되고있습니다.

돌부채꽃은 물푸레나무, 피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는 밑에서 바위우로 줄기를 뻗어가면서 무리지어있습니다. 한㎡당 포기수는 14포기정도이며 사철 푸른 여러해살이풀입니다. 식물의 높이는 30㎝안팎이고 잎은 윤기나는 풀색이며 잎꼭지는 길고 잎몸은 길둥근모양을 하고있습니다. 뿌리줄기는 굵고 구부러져있으며 이끼가 낀 습한 바위우의 부식층에 20~30㎝정도로 뻗어나갔습니다.

전천돌부채꽃군락

전천전나무는 자강도 전천군 와운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 나라 전나무가운데서 제일 크고 500년이상 자란것으로 하여 그 수명과 특징을 연구하는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51m이고 밑둥둘레는 7. 9m이며 가슴높이둘레가 5. 2m, 밑둥직경은 2. 6m입니다. 2m높이에서부터 규칙적으로 가지들이 뻗어있으며 생김새는 원추형입니다. 나무줄기의 껍질색갈은 재빛암갈색이며 터짐이 있습니다.

암수한그루식물로서 주체70(1981)년에 강냉이 이삭만큼 큰 솔방울모양의 열매가 100여개 달린적이 있습니다.

앙토비슬나무는 자강도 초산군 앙토리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풍치상의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여 보호되고있습니다. 나무는 1680년경에 심은것이며 나무의 높이는 25m이고 밑둥둘레는 5. 8m이며 가슴높이둘레는 5. 6m, 나무갓직경은 26m입니다. 나무는 1. 3m높이에서 두개의 가지로 갈라지고 그우로 올라가면서 여러개의 가지를 쳤습니다. 나무는 우산모양을 이루고있습니다.

가산령잣나무는 자강도 화평군 가림리에 있습니다. 500년 자란 이 나무는 우리 나라 잣나무가운데서 두번째로 큰 나무입니다. 나무의 높이는 30m, 밑둥둘레는 6. 4m, 가슴높이둘레는 4. 3m입니다. 그리고 밑둥직경이 2. 04m이고 가슴높이직경이 1. 4m이며 나무갓직경은 8m입니다.

이 잣나무는 우리 나라 잣나무의 지대적분포특성을 연구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본사기자 최기철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시대를 부른다

력사적인 10.4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주체96(2007)년 10월 북과 남의 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을 통해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들이 담겨진 10.4선언이 채택된것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였다.

10.4선언은 6.15북남공동선언이 밝힌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중시하고 모든것을 이에 지향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국통일운동은 커다란 우여곡절을 겪고있다.

초불민심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의 현 당국자는 소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계승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도이췰란드를 행각하면서 발표한 《한반도평화구상》이라는데서 도이췰란드식《통일경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해주고있다.》느니 뭐니 하며 도이췰란드식의 통일이 조선반도통일의 표본이라도 되는듯이 억설을 늘어놓았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도이췰란드식통일이란 다름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조선의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것을 선포한것이나 같으며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결국 6.15통일시대를 외면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외세에는 추종하고 동족과는 대결하는 《비핵, 개방, 3 000》이니,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즈덴선언》이니 하는 따위들을 내들고 《체제대결》, 《흡수통일》을 부르짖던 리명박이나 박근혜따위의 보수패당이 하던 짓거리와 다른것이 아무것도 없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리명박이나 박근혜가 외세에 추종하면서 강행한 대결정책에 의해 활기있게 진행되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들이 모조리 차단되고 6.15시대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파탄되였으며 북과 남의 당국과 민간이 함께 성대히 진행하던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도 열리지 못하였다는것을 뻔히 알고있으면서 그것을 답습하려 하고있다.

현실은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인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근본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조국통일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민족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것은 실로 어리석은짓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립장, 든든한 배짱과 자존심을 가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과 남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야 할 한민족이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면 뭐니뭐니해도 자기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며 외세에 구걸하는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며 반통일행위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자기 민족의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하고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면 사대주의를 하게 되고 외세에 의존하게 된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민족의 운명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빌붙을것이 아니라 민족공조, 민족자주의 길로 나와야 한다.

온 민족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민족자주를 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은 하루빨리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엄향심

떠오르는 《천안》호사건의 진상

남조선에서 《천안》호사건의 진상에 대한 사실자료가 공개되여 사회의 초점을 모으고있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가 《한민구와 〈천안〉함 조작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40여군데의 조사결과조작을 지시받은 오준장은 왜 억울했을가?》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전하였다.

《천안》호 사고직후 최대한 사실에 립각한 《〈천안〉함사고보고서》가 작성되자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던 오병흥준장은 즉시 당시의 한민구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오병흥을 불러 《보고서》를 40여군데 수정할것을 지시하였다. 지시내용에 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여있었다.

이때로부터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던중 합동참모본부내 동창생인 대령에게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 대령은 《그것은 진실을 조작하는것》이라는 리유를 들어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난감해진 오병흥은 다른 장교들과 함께 《보고서》를 수정한 후 다시 의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방부가 사건조사결과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 이후 국방부 감찰은 오병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였으며 그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그 누구도 모르게 되였다고 까밝히고있다.

글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천안》호사건조작과 은폐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시작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언론에 실린 글은 《천안》호사건이 일어났던 당시를 돌이켜보게 한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으로부터 7년전 2010년 3월 조선서해에서는 북침전쟁연습에 내몰린 괴뢰해군의 초계함 《천안》호가 갑자기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함선은 두동강이 났으며 46명의 사병들이 생죽음을 당했다.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괴뢰패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천안》호가 《북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였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내돌리면서 북남대결에 광분한것이다.

지어 보수패당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통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것이 《리상적인 방안》이라고 떠벌이며 함선침몰사건을 국제화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그들은 미일상전들을 발바닥에 불이 일도록 찾아다니며 반공화국제재와 《공동보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협력》 등을 구걸하였다.

하다면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모해하는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모략극을 꾸민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을 가로막고 외세와 함께 동족대결소동을 더한층 강화하자는것이였다. 반통일에 환장한 괴뢰역적패당은 6.15시대의 흐름을 되살릴데 대한 남조선각계의 요구를 억누르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완전히 차단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일 심산으로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해냈다.

그것은 리명박패당이 《천안》호침몰을 한사코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우겨대면서 북남관계를 전면폐쇄하는 《5.24조치》를 들고나온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저들의 집권위기를 모면하자는데 있었다. 당시 리명박패당은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민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자 《천안》호침몰사건을 걸고 《안보불안》과 《북의 위협증대》를 요란히 광고하여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였다.

《천안》호뿐이 아니다. 남조선 전지역을 대혼란속에 몰아넣은 《북의 전파교란사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콤퓨터망마비사태, 《북 무인기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수패당은 그것을 무작정 공화국과 련결시키며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해왔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며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천안》호침몰사건은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대결책동을 강화하면서 통치위기를 모면할수만 있다면 그 어떤 모략과 음모책동도 서슴지 않는 괴뢰보수패당의 흉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진룡진

고려시기 문인 김극기

김극기(12세기말-13세기초)는 고려 후반기 랑만주의적경향의 시작품들과 함께 사실주의적 경향의 우수한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한 진보적인 시인의 한사람이다.

그는 경주의 량반가정에서 출생하여 일찌기 진사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은 하지 않고 창작에만 몰두하였다.

그는 해좌칠현의 문인들과 깊이 사귀면서 그들의 사상적영향을 많이 받아 창작적경향에서도 이들과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나라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과 접촉하였으며 비참한 농촌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였다. 이것은 그의 창작에서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게 한 생활적바탕으로 되였다. 김극기의 작품들은 135권으로 된 《김거사집》에 출판되였다. 《김거사집》은 김극기의 집에서 찾아낸 유고를 정리한것으로서 고시, 률시 등을 싣고있다. 현재 《김거사집》은 남아있지 않고 그에 대한 일부 자료가 《용재총화》, 《동문선》 등에 실려있다.

현재까지 남아서 전하여지는 그의 작품은 대략 200여편이다.

그의 시 《취해서 부른 노래》는 랑만주의적경향의 대표적작품인 동시에 가장 우수한 작품의 하나로 되고있다.

시에서 랑만주의적경향은 시인의 포부를 실현할수 없는 당대의 모순된 사회현실과 그에 불만을 품고 뜻을 굽히지 않으려는 사상적지향의 충돌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이러한 랑만주의적경향은 다른 시들인 《늙은 어부》, 《황산강》 등의 작품들에서도 표현되고있다.

시 《농사집의 네 절기》, 《촌집》, 《봄날》 등은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작품들이다.

김극기는 비판적기백이 높은 랑만주의적경향의 작품들과 당시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처지를 생동하게 그려낸 사실주의적경향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함으로써 고려 후반기 진보적시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 *

《대화》타령은 연막이다

얼마전 미국은 트럼프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출구전략》을 내놓았다, 조미량자대화나 6자회담재개 등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떠들었다.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련이어 언론에 나서서 《북을 대화에로 유도하겠다.》느니,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느니, 《북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수 있는 합리적선택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마치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전에도 미국의 트럼프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안들을 탁자우에 올려놓고 골머리를 짜내던 끝에 마침내 대조선정책을 《최대의 압박과 관여》로 최종확정한데 이어 그를 보다 구체화한 《4대기조》라는것을 공개하였는바 그 4번째 조항에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을 박아넣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국은 2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동시에 조선동해에 전개하고 괌도에 배비된 《B-1B》핵전략폭격기들을 투입하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어 핵잠수함 《샤이엔》호를 부산항에 들이밀어 북침전쟁소동을 벌려놓았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에이브라함 링컨》호를 비롯한 니미쯔급핵항공모함들에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물들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신형스텔스전투기를 탑재할수 있도록 함전투체계를 개조하는 한편 정밀유도폭탄투하훈련도 강행하여 이동목표에 대한 타격력을 증대시켜보려 하였다.

지금도 미국은 조선반도주변에서 각이한 명목의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고있으며 핵전략자산들을 수시로 조선반도에 들이밀어 핵선제타격훈련을 진행하고있다.

사태는 미국의 《대화》타령은 세계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고 날로 무분별해지는 저들의 《대북선제공격》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연막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실지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1차,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을 두고 저저마다 나서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느니, 《군사력사용도 불사》하겠다느니 하며 폭언들을 늘어놓고있다.

그런가 하면 미중앙정보국장도 공화국의 《수뇌부제거》에 대해 운운하였다. 이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종목표가 공화국의 《정권교체》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하고있다.

지금 트럼프행정부는 최악의 위기에 시달리고있다. 독선적이며 극단주의적인 대내외정책을 강행한것으로 하여 지지률이 걷잡을수 없이 떨어지고 각종 정치추문들이 쏟아져나오는 속에 집권한지 불과 몇달밖에 안되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문제까지 론의되고있다. 이로 하여 헤여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모험적인 《대북선제공격》카드를 만지작거리고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있다.

미국외교협회의 상급연구사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은 트럼프가 날로 불리하게 번져지는 정치추문사건으로 탄핵위기까지 겹쳐들고있는 조건에서 북의 핵시설들과 장거리미싸일기지들에 대한 선제공격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트럼프가 통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반대파들에게 《단호한 정권》, 《행동하는 정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한다는것이 그들의 평이다.

통치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데서 출로를 찾는것은 미국의 력대 통치배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1949년말-1950년초 미국에서 경제공황이 들이닥치고 대내외적위기가 심각해지자 당시 대통령이였던 트루맨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고 1998년에 있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공격도 성추문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클린톤행정부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감행한것이였다. 미국지배층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운명을 위기모면을 위한 제물로 만들어버린 실례는 허다하다.

하지만 미국은 오산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원자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

만일 미국이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군사적선택의 길로 나온다면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경각에 달한 저들의 처지를 잘 알고 《대화》타령과 같은 부질없는 잔꾀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대조선정책전환에로 나와야 한다.

본사기자 엄향심

선전화 《세계여 속지 말라!》

과거범죄를 한사코 회피하려드는 일본

성노예범죄를 어떻게 하나 회피하려는 일본의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미국의 애틀란타주재 일본총령사가 도시에 소녀상을 세우는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시장과 시의회를 대상으로 뢰물공작을 하였다.

그것도 부족하여 지역신문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대부분 조선에서 온 녀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운운하다 못해 그 녀성들을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라고 모독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수상 아베의 특사로 남조선을 행각한 자민당 간사장 니까이도 일본군성노예문제재협상을 념두에 두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였다. 어느 한 대상을 돌아보던 그는 《하찮은것들로 티각태각하지 말고 사이좋게 가자.》고 하면서 《간계를 꾸미는 일당을 박멸해야 한다.》느니, 《한줌이라도 발견하면 박멸해달라.》느니 하는 폭언을 한것이다.

일본극우익정객들속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이러한 언동들은 일본이 지난날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들이 얼마나 간특하고 철면피한가를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조선민족에게는 아직도 지난 세기 일제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가슴아픈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 특히 과거 일제가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전쟁마당으로 끌고다니면서 치욕스러운 성노예살이를 강요한 범죄적만행은 오늘도 만사람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절대로 아물수 없는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에 대해 언제 한번 량심적이고 책임적인 사죄나 배상을 한적이 없다. 오히려 《직업적매춘부》니 뭐니 하고 성노예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사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저들의 과거범죄를 정당화하여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위안부》들을 성노예라고 규정한 유엔기구의 공정한 평가에 대해서도 그 무슨 《반론문서》라는것을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며 항의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지어 남조선에 설치된 성노예소녀상을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점거이다.》, 《돈을 받았으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호통치며 더욱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부정은 그것을 다시 되풀이하겠다는것이나 같다. 이미 검증된 일본군성노예범죄를 한사코 부정하고 응당 져야 할 력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진속은 재침야욕이다.

일본의 해외침략의 첫 대상은 공화국이다. 그들은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공화국을 강점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실현하려 하고있다. 그런데로부터 공화국과 조선인민에 대해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민족배타주의적인 폭언들을 마구 내뱉고있다.

일본의 이시까와현 지사 다니모또 마사노리가 현내 정장회의라는데서 《정말로 북조선을 봉쇄해야 한다.》, 《북조선국민을 굶겨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민족에 대한 대량살륙을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자회견장에서는 공화국내부에서 《체제가 붕괴해가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느니 하며 악의에 찬 발언을 하였다.

오늘 일본은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그 어느때보다 군사대국화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공화국의 탄도로케트를 막는다고 하면서 고성능레이다와 새로운 신형미싸일의 실전배비를 서두르고있으며 새로운 무장장비의 도입을 위한 군사비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제창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아시아는 어제날의 아시아가 아니며 공화국도 지난날의 조선이 아니다.

일본이 계속 죄를 덧쌓는다면 파국적인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자멸을 청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걷어치우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도 유익한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유모아

빨리 오세요

글씨를 몹시 갈겨쓰는 사람이 있었다. 한번은 그가 외지에서 안해에게 편지를 보내여 일이 있어 제때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알렸다.

며칠후 안해가 전보를 보내왔다. 전보문에는 《빨리 돌아와 편지를 읽어주세요.》라고 씌여있었다.

* * *

조선의 관광

당창건기념탑

평양의 문수거리에 마치와 낫과 붓을 형상한 탑이 있습니다.

이 탑이 당(조선로동당)창건기념탑입니다.

50m높이의 탑신아래쪽에는 원형띠가 둘러져있습니다. 원형띠에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구호가 새겨져있습니다.

당창건기념탑은 이렇게 마치와 낫과 붓을 형상한 세개의 탑신을 원형띠를 둘러 하나의 탑신으로 되게 함으로써 조선로동당이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구성분으로 하는 자주시대의 새형의 대중적당이라는것과 동시에 그 업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창건하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일심단결된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를 보여주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려는 조국의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고있습니다. 그것을 탑의 원형띠내부에 새겨진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와 일심단결의 위력, 인류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모습을 내용으로 하는 세편의 대형부각상이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당창건기념탑참관을 통하여 사회주의조선과 조선로동당 그리고 조선인민에 대하여 더 깊은 리해를 가질수 있습니다.

묘향산에 있는 《팔만대장경》보존고　　　본사기자 방은심

산세가 기묘하고 수려하며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널리 알려진 묘향산에 가을이 왔다.

가을을 맞아 은행나무잎 땅에 떨어져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는데 《팔만대장경》보존고의 청기와는 더욱 푸름을 돋군다.

《팔만대장경》보존고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가을풍치와 더불어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길이 전해주는듯싶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782153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